

모든 생명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채찍의 아픔을 무서워한다. 자기를 울서하듯 남을 울서해 죽이거나 때리지 마라. (法句經·도장품 155절)

발행처	인민간행소	신조약	편집장	주관인
주소	서울시 중구 필동3가26	전화	02-279-1270	인쇄인
발행일	1990년 5월 16일	간행인	김영로	

제 1049호 (주간)

1964.1.1. 창간호부터 10.1995.10.13 제 3종우편물(가)인정

The Dongguk University Press

1990년(단기4323년)5월16일 (수요일) 【1】

민자당 분쇄투쟁 "총궐기"

9일 서울역·명동일대 등서 격렬한 시위 19·20일 전대협 발대식·광주총회 참가투쟁 가열

본교 김진태군 직격탄 맞아 실명

지난 9일 민자당 창당을 기해 본교를 비롯한 서울연소속 대학생 2만여명은 이날 '민자당 분쇄와 노태우정권타도를 위한 투쟁선포식'을 각 학교별로 갖고 신세계앞 광장과 을지로입구, 명동일대, 서울역 광장을 장악한 채 경찰에 맞서 밤늦게

까지 격렬한 시위를 벌였으며 시위도중 미문화원 1층, 민정당 지구당사등이 불타기도 했다. 이날 시위 과정에서 본교 김진태(사학3)군이 세로나 백화점 앞에서 경찰이 쓴 직격탄에 맞아 왼쪽눈이 실명되는 중상을 입어 학내외에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관련사진 7면)

또한 이날 반민자당 투쟁은 서울 뿐만 아니라 부산, 광주, 대구 등 전국에서 일제히 '타도 노태우 해체 민자당'을 외쳤으며 시민들의 적극적 호응속에 지난 87년 6월항쟁 이후 최대규모의 전국적 시위가 벌어졌다.

그러나 이번 시위는 이날 뿐 아니라 5·18 광주항쟁 10주기와 19일 전대협 발대식까지 계속적인 투쟁이 전개될 예정이다. 민자당 분쇄와 노태우 정권타도를 위한 범대학 투쟁 선포식이 지난 9일 오후 3시 학생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서관 앞에서 열렸다.

범대학인 투쟁 선포식

이날 사회과학대학에선 새로 나뉘어진 100여명 학생이 직격탄을 맞아 실명위기에 처한 김진태(사학3)군을 지원하기 위해 학사일정을 보류하고 전국민 홍보, 서명운동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을 결의했다.

이와 관련 사학과에서 는 현재대학위를 구성, 범정소속까지 분사할 것임을 밝혔다.

김진태군 사근 진상규명

김진태(사학3)군의 사근진상 규명 및 이후 대학내에 대한 사학과 비상총회가 지난 10일 오전 11시 사회과학관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명진관(A205)에서 열렸다.

본지 창간40주년 자축연 성황 민족자주언론구현 다짐

'본지 창간40주년 기념 자축연'이 지난 10일 오후 6시 30분 申國柱총장사리, 吳國根부총장, 崔敏根총동맹회부회장등 내외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호텔소피텔호텔에서(2층, 동관) 열렸다.

이날 자축연에서 申國柱총장사리는 인사말을 통해 "동대신문이 불혹의 나이를 맞은 것을 축하하며 앞으로는 학교와 국가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본사 주간 朴榮吉(법학)교수의 연례보고와 편집장 서장훈(정외3)군의 현황보고가 있었다.

이날 전국 대학신문주간교수협의회장 임진창(사학대)교수는 축사를 통해 "전국 대학신문사

4학년 취업특강 실시 공채시험 준비요령등 강연

'90학년도 대학생 취업특강'이 학생처·졸업준비위원회의 주관으로 지난 10일 오후 2시 학생 1천여명이 모인 가운데 중강당에서 열렸다.

취업문제에 당면한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열린 이번 특강은 강사로 장재성(리쿠르트정보센터실장)씨가 나와 대학생 취업이 심각한 현재상황 하에서 취업준비 및 면접에 관해 전반적으로 소개했다.

가자들이 구속되는 등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동대신문은 이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는데 앞장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본사동인 출신중 본사 발전에 사회에 기여한 李奎顯(前 세종대총장) 동인 李德圭(前 국회의원) 동인 李聚奎(중앙일보사사건부장) 동인 李奎顯(KBS 뉴스앵커) 동인 李奎顯(사인) 동인 李奎顯(불지사대교) 동인 李奎顯(미승명문가) 동인 李奎顯(문학명문가) 동인 등 8명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吳仁甲 동국학원이사장, 鄭在哲동맹회장, 李奎顯총동맹부총장, 黃明秀국회의원, 金道勳서울고교사 미남사장, 宋熙熙동국문화학원의장, 연세대학교 연세춘수사등이 본지 창간40주년을 축하하는 기념화환을 보내왔다.

인도학·인도철학회 오는 25일 창립총회

인도학·인도철학회(회장=元義範)의 학회지 '印度學·印度哲學' 창간기념회가 오는 25일 오후 5시 동관(5층동)에서 열린다.

이날 창립총회에는 吳仁甲 동국학원이사장, 鄭在哲동맹회장, 李奎顯총동맹부총장, 黃明秀국회의원, 金道勳서울고교사 미남사장, 宋熙熙동국문화학원의장, 연세대학교 연세춘수사등이 본지 창간40주년을 축하하는 기념화환을 보내왔다.

이날 창립총회에는 吳仁甲 동국학원이사장, 鄭在哲동맹회장, 李奎顯총동맹부총장, 黃明秀국회의원, 金道勳서울고교사 미남사장, 宋熙熙동국문화학원의장, 연세대학교 연세춘수사등이 본지 창간40주년을 축하하는 기념화환을 보내왔다.

이날 창립총회에는 吳仁甲 동국학원이사장, 鄭在哲동맹회장, 李奎顯총동맹부총장, 黃明秀국회의원, 金道勳서울고교사 미남사장, 宋熙熙동국문화학원의장, 연세대학교 연세춘수사등이 본지 창간40주년을 축하하는 기념화환을 보내왔다.

이날 창립총회에는 吳仁甲 동국학원이사장, 鄭在哲동맹회장, 李奎顯총동맹부총장, 黃明秀국회의원, 金道勳서울고교사 미남사장, 宋熙熙동국문화학원의장, 연세대학교 연세춘수사등이 본지 창간40주년을 축하하는 기념화환을 보내왔다.

이날 창립총회에는 吳仁甲 동국학원이사장, 鄭在哲동맹회장, 李奎顯총동맹부총장, 黃明秀국회의원, 金道勳서울고교사 미남사장, 宋熙熙동국문화학원의장, 연세대학교 연세춘수사등이 본지 창간40주년을 축하하는 기념화환을 보내왔다.

이날 창립총회에는 吳仁甲 동국학원이사장, 鄭在哲동맹회장, 李奎顯총동맹부총장, 黃明秀국회의원, 金道勳서울고교사 미남사장, 宋熙熙동국문화학원의장, 연세대학교 연세춘수사등이 본지 창간40주년을 축하하는 기념화환을 보내왔다.

이날 창립총회에는 吳仁甲 동국학원이사장, 鄭在哲동맹회장, 李奎顯총동맹부총장, 黃明秀국회의원, 金道勳서울고교사 미남사장, 宋熙熙동국문화학원의장, 연세대학교 연세춘수사등이 본지 창간40주년을 축하하는 기념화환을 보내왔다.

이날 창립총회에는 吳仁甲 동국학원이사장, 鄭在哲동맹회장, 李奎顯총동맹부총장, 黃明秀국회의원, 金道勳서울고교사 미남사장, 宋熙熙동국문화학원의장, 연세대학교 연세춘수사등이 본지 창간40주년을 축하하는 기념화환을 보내왔다.

이날 창립총회에는 吳仁甲 동국학원이사장, 鄭在哲동맹회장, 李奎顯총동맹부총장, 黃明秀국회의원, 金道勳서울고교사 미남사장, 宋熙熙동국문화학원의장, 연세대학교 연세춘수사등이 본지 창간40주년을 축하하는 기념화환을 보내왔다.

이날 창립총회에는 吳仁甲 동국학원이사장, 鄭在哲동맹회장, 李奎顯총동맹부총장, 黃明秀국회의원, 金道勳서울고교사 미남사장, 宋熙熙동국문화학원의장, 연세대학교 연세춘수사등이 본지 창간40주년을 축하하는 기념화환을 보내왔다.

이날 창립총회에는 吳仁甲 동국학원이사장, 鄭在哲동맹회장, 李奎顯총동맹부총장, 黃明秀국회의원, 金道勳서울고교사 미남사장, 宋熙熙동국문화학원의장, 연세대학교 연세춘수사등이 본지 창간40주년을 축하하는 기념화환을 보내왔다.

이날 창립총회에는 吳仁甲 동국학원이사장, 鄭在哲동맹회장, 李奎顯총동맹부총장, 黃明秀국회의원, 金道勳서울고교사 미남사장, 宋熙熙동국문화학원의장, 연세대학교 연세춘수사등이 본지 창간40주년을 축하하는 기념화환을 보내왔다.

이날 창립총회에는 吳仁甲 동국학원이사장, 鄭在哲동맹회장, 李奎顯총동맹부총장, 黃明秀국회의원, 金道勳서울고교사 미남사장, 宋熙熙동국문화학원의장, 연세대학교 연세춘수사등이 본지 창간40주년을 축하하는 기념화환을 보내왔다.

이날 창립총회에는 吳仁甲 동국학원이사장, 鄭在哲동맹회장, 李奎顯총동맹부총장, 黃明秀국회의원, 金道勳서울고교사 미남사장, 宋熙熙동국문화학원의장, 연세대학교 연세춘수사등이 본지 창간40주년을 축하하는 기념화환을 보내왔다.

이날 창립총회에는 吳仁甲 동국학원이사장, 鄭在哲동맹회장, 李奎顯총동맹부총장, 黃明秀국회의원, 金道勳서울고교사 미남사장, 宋熙熙동국문화학원의장, 연세대학교 연세춘수사등이 본지 창간40주년을 축하하는 기념화환을 보내왔다.

이날 창립총회에는 吳仁甲 동국학원이사장, 鄭在哲동맹회장, 李奎顯총동맹부총장, 黃明秀국회의원, 金道勳서울고교사 미남사장, 宋熙熙동국문화학원의장, 연세대학교 연세춘수사등이 본지 창간40주년을 축하하는 기념화환을 보내왔다.

이날 창립총회에는 吳仁甲 동국학원이사장, 鄭在哲동맹회장, 李奎顯총동맹부총장, 黃明秀국회의원, 金道勳서울고교사 미남사장, 宋熙熙동국문화학원의장, 연세대학교 연세춘수사등이 본지 창간40주년을 축하하는 기념화환을 보내왔다.

이날 창립총회에는 吳仁甲 동국학원이사장, 鄭在哲동맹회장, 李奎顯총동맹부총장, 黃明秀국회의원, 金道勳서울고교사 미남사장, 宋熙熙동국문화학원의장, 연세대학교 연세춘수사등이 본지 창간40주년을 축하하는 기념화환을 보내왔다.

이날 창립총회에는 吳仁甲 동국학원이사장, 鄭在哲동맹회장, 李奎顯총동맹부총장, 黃明秀국회의원, 金道勳서울고교사 미남사장, 宋熙熙동국문화학원의장, 연세대학교 연세춘수사등이 본지 창간40주년을 축하하는 기념화환을 보내왔다.

이날 창립총회에는 吳仁甲 동국학원이사장, 鄭在哲동맹회장, 李奎顯총동맹부총장, 黃明秀국회의원, 金道勳서울고교사 미남사장, 宋熙熙동국문화학원의장, 연세대학교 연세춘수사등이 본지 창간40주년을 축하하는 기념화환을 보내왔다.

이날 창립총회에는 吳仁甲 동국학원이사장, 鄭在哲동맹회장, 李奎顯총동맹부총장, 黃明秀국회의원, 金道勳서울고교사 미남사장, 宋熙熙동국문화학원의장, 연세대학교 연세춘수사등이 본지 창간40주년을 축하하는 기념화환을 보내왔다.

이날 창립총회에는 吳仁甲 동국학원이사장, 鄭在哲동맹회장, 李奎顯총동맹부총장, 黃明秀국회의원, 金道勳서울고교사 미남사장, 宋熙熙동국문화학원의장, 연세대학교 연세춘수사등이 본지 창간40주년을 축하하는 기념화환을 보내왔다.

이날 창립총회에는 吳仁甲 동국학원이사장, 鄭在哲동맹회장, 李奎顯총동맹부총장, 黃明秀국회의원, 金道勳서울고교사 미남사장, 宋熙熙동국문화학원의장, 연세대학교 연세춘수사등이 본지 창간40주년을 축하하는 기념화환을 보내왔다.

이날 창립총회에는 吳仁甲 동국학원이사장, 鄭在哲동맹회장, 李奎顯총동맹부총장, 黃明秀국회의원, 金道勳서울고교사 미남사장, 宋熙熙동국문화학원의장, 연세대학교 연세춘수사등이 본지 창간40주년을 축하하는 기념화환을 보내왔다.

이날 창립총회에는 吳仁甲 동국학원이사장, 鄭在哲동맹회장, 李奎顯총동맹부총장, 黃明秀국회의원, 金道勳서울고교사 미남사장, 宋熙熙동국문화학원의장, 연세대학교 연세춘수사등이 본지 창간40주년을 축하하는 기념화환을 보내왔다.

이날 창립총회에는 吳仁甲 동국학원이사장, 鄭在哲동맹회장, 李奎顯총동맹부총장, 黃明秀국회의원, 金道勳서울고교사 미남사장, 宋熙熙동국문화학원의장, 연세대학교 연세춘수사등이 본지 창간40주년을 축하하는 기념화환을 보내왔다.

이날 창립총회에는 吳仁甲 동국학원이사장, 鄭在哲동맹회장, 李奎顯총동맹부총장, 黃明秀국회의원, 金道勳서울고교사 미남사장, 宋熙熙동국문화학원의장, 연세대학교 연세춘수사등이 본지 창간40주년을 축하하는 기념화환을 보내왔다.

이날 창립총회에는 吳仁甲 동국학원이사장, 鄭在哲동맹회장, 李奎顯총동맹부총장, 黃明秀국회의원, 金道勳서울고교사 미남사장, 宋熙熙동국문화학원의장, 연세대학교 연세춘수사등이 본지 창간40주년을 축하하는 기념화환을 보내왔다.

이날 창립총회에는 吳仁甲 동국학원이사장, 鄭在哲동맹회장, 李奎顯총동맹부총장, 黃明秀국회의원, 金道勳서울고교사 미남사장, 宋熙熙동국문화학원의장, 연세대학교 연세춘수사등이 본지 창간40주년을 축하하는 기념화환을 보내왔다.

이날 창립총회에는 吳仁甲 동국학원이사장, 鄭在哲동맹회장, 李奎顯총동맹부총장, 黃明秀국회의원, 金道勳서울고교사 미남사장, 宋熙熙동국문화학원의장, 연세대학교 연세춘수사등이 본지 창간40주년을 축하하는 기념화환을 보내왔다.

이날 창립총회에는 吳仁甲 동국학원이사장, 鄭在哲동맹회장, 李奎顯총동맹부총장, 黃明秀국회의원, 金道勳서울고교사 미남사장, 宋熙熙동국문화학원의장, 연세대학교 연세춘수사등이 본지 창간40주년을 축하하는 기념화환을 보내왔다.

이날 창립총회에는 吳仁甲 동국학원이사장, 鄭在哲동맹회장, 李奎顯총동맹부총장, 黃明秀국회의원, 金道勳서울고교사 미남사장, 宋熙熙동국문화학원의장, 연세대학교 연세춘수사등이 본지 창간40주년을 축하하는 기념화환을 보내왔다.

이날 창립총회에는 吳仁甲 동국학원이사장, 鄭在哲동맹회장, 李奎顯총동맹부총장, 黃明秀국회의원, 金道勳서울고교사 미남사장, 宋熙熙동국문화학원의장, 연세대학교 연세춘수사등이 본지 창간40주년을 축하하는 기념화환을 보내왔다.

이날 창립총회에는 吳仁甲 동국학원이사장, 鄭在哲동맹회장, 李奎顯총동맹부총장, 黃明秀국회의원, 金道勳서울고교사 미남사장, 宋熙熙동국문화학원의장, 연세대학교 연세춘수사등이 본지 창간40주년을 축하하는 기념화환을 보내왔다.

이날 창립총회에는 吳仁甲 동국학원이사장, 鄭在哲동맹회장, 李奎顯총동맹부총장, 黃明秀국회의원, 金道勳서울고교사 미남사장, 宋熙熙동국문화학원의장, 연세대학교 연세춘수사등이 본지 창간40주년을 축하하는 기념화환을 보내왔다.

이날 창립총회에는 吳仁甲 동국학원이사장, 鄭在哲동맹회장, 李奎顯총동맹부총장, 黃明秀국회의원, 金道勳서울고교사 미남사장, 宋熙熙동국문화학원의장, 연세대학교 연세춘수사등이 본지 창간40주년을 축하하는 기념화환을 보내왔다.



민자당 창당일인 9일 반민자당의 열기가 전국을 뒤덮었다. 서울에서는 시청, 서울역에서 경찰에 맞서 시위를 벌였고 이날 미문화원이 일부 불타기도 했다.

야간 산공·전산과 주간 흡수 영문등 5개과는 그대로 존속기로

야간강과 7개과중 올해 주간으로 통합할 예정이던 3개과중에서 영문과만 91년도 야간강과 모집이 결정되고 산공·전산과는 그대로 주간에 통합할 예정이다. 야간강과 영문과의 경우, 지난 9일 오후 4시 金正植(영문학)교수를 비롯한 야간강과 영문과 교수 7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문과 패럴렐 라운지에서 열린 교수회에서 올해 주간만 1백명 모집할 것을 오는 91학년도부터는 주간과 야간 각 50명씩 모집하기로 결정했다. 야간강과 산공과와 전산과의 폐지 결정은 산공과의 경우,

지난 10일 교수와 학생들이 참여한 비상총회에서 91학년도 야간 산공과 부활 및 폐지에 관한 투표를 가져 총 1백명이 참석해 찬성 53명, 폐지 44명, 기권 3명으로 투표인원 2/3 이상 찬성을 얻지 못해 폐지가 결정됐으며 학생회장 유기동(야간산공4)군등 학생회간부는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총사퇴, 야간 산업공학과 학생회를 해체했다. 또한 야간강과 산공과 학생회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부대 학생실을 점거농성하며 교수들에게 91학년도 야간 산공과 부

활성시, 산업체 근로자들을 위한 특별전형제 실시등을 요구했었는데 이번 투표결과에 따라 농성을 해제했다. 야간 전산과도 교수와 학생이 참가한 가운데 전산과 존폐에 관한 투표를 했는데 총참가인원 153명 중 존속 51명, 폐지 102명으로 폐지가 결정됐다. 이에따라 야간강과 존폐를 놓고 진통이 계속되어온 이부대는 91년도부터 산공·전산과 2개만 폐지하고 나머지 5개과는 그대로 야간강과 모집을 하게 됐다.

10일 가두투쟁 출정식

'91투쟁보고 및 가두투쟁출정식이 지난 10일 오후 3시 학생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서관에서 열렸다.

본과대학생회장 김경환(사학4)군의 사회로 9일투쟁보고와 이후 투쟁방향결의등의 순으로 진행된 이날 집회에서 김진태(사학3)군 사근상황보고에서 사회과학대학 김원진(사학3)군은 "지난 9일 오후 6시경 시청 세로나 백화점 앞에서 시위도중 서울시경 20중대 소속 전경이 쓴 직격탄에 맞아 왼쪽눈이 실명되는 중상을 입어 이날 고려병원 수술실에서 10시간의 대수술을 받았으나 결국 왼쪽눈은 실명되고 오른쪽눈도 실명위기에 있는 상태로 2차수술의 시기는 김군의 현재 상태가 워낙 중상인 까닭에 아직 결정짓지 못하고 있다"고

전경에 참가한 어느 한 병사가 싸움이 끝나 귀향길에 올랐다

지치고 피곤한 육신은 가눌수 없도록 멍했다. 기자 속에서 문득 눈을 떠 주변을 살펴보다가 커다란 신문 활자를 발견하게 된다. "조국을 위하여 싸우라"라는 문장을 평화의 마음으로 귀향길에 오르다" 그것들의 활자는 병사의 가슴에 실렸던 충격으로 와 닿았다. 그 활자 밑에 갖은 미사여구로 동원된 내용은 읽어 보기가 민망했다.

그 병사가 체현했던 전쟁은 위대한 조국을 위한 것도 아닌 그냥 의무적으로 끌려가 죽을 극한 그 지옥에서 막 되살아나는 이름 뿐이었다. 민족을 위한 열사는 더구나 아니었다. 오직 병사의 가슴속에 회한이 덩어리로 남는것은 뼈가 우시는 추위와 배고픔속에서도 살아남아야겠다는 가장 절절한 생명에의 욕구 뿐이었다. 그런데 정치지도자들은 그들을 전쟁의 본모로 잡아 죽음속에 내던지다가 "위대한 조국의 병사"라는 신론 맞물로

보리수

그들의 이름을 몽땅 팔아 넘겨버린 것이었다.

인류학자 레카스트루스가 쓴 "슬픈 열대"속에 나오는 예기 한 토막이다.

오늘은 광주 시내에 나가면 최후만 남은가든 거리를 뒤 덮고있다. 5·18광주 민주항쟁 10돌이 돌아오고 있다.

그들의 이름을 몽땅 팔아 넘겨버린 것이었다.

인류학자 레카스트루스가 쓴 "슬픈 열대"속에 나오는 예기 한 토막이다.

오늘은 광주 시내에 나가면 최후만 남은가든 거리를 뒤 덮고있다. 5·18광주 민주항쟁 10돌이 돌아오고 있다.

그들의 이름을 몽땅 팔아 넘겨버린 것이었다.

인류학자 레카스트루스가 쓴 "슬픈 열대"속에 나오는 예기 한 토막이다.

오늘은 광주 시내에 나가면 최후만 남은가든 거리를 뒤 덮고있다. 5·18광주 민주항쟁 10돌이 돌아오고 있다.

그들의 이름을 몽땅 팔아 넘겨버린 것이었다.

인류학자 레카스트루스가 쓴 "슬픈 열대"속에 나오는 예기 한 토막이다.

오늘은 광주 시내에 나가면 최후만 남은가든 거리를 뒤 덮고있다. 5·18광주 민주항쟁 10돌이 돌아오고 있다.

그들의 이름을 몽땅 팔아 넘겨버린 것이었다.

인류학자 레카스트루스가 쓴 "슬픈 열대"속에 나오는 예기 한 토막이다.

오늘은 광주 시내에 나가면 최후만 남은가든 거리를 뒤 덮고있다. 5·18광주 민주항쟁 10돌이 돌아오고 있다.

그들의 이름을 몽땅 팔아 넘겨버린 것이었다.

인류학자 레카스트루스가 쓴 "슬픈 열대"속에 나오는 예기 한 토막이다.

오늘은 광주 시내에 나가면 최후만 남은가든 거리를 뒤 덮고있다. 5·18광주 민주항쟁 10돌이 돌아오고 있다.

그들의 이름을 몽땅 팔아 넘겨버린 것이었다.

인류학자 레카스트루스가 쓴 "슬픈 열대"속에 나오는 예기 한 토막이다.

오늘은 광주 시내에 나가면 최후만 남은가든 거리를 뒤 덮고있다. 5·18광주 민주항쟁 10돌이 돌아오고 있다.

그들의 이름을 몽땅 팔아 넘겨버린 것이었다.

인류학자 레카스트루스가 쓴 "슬픈 열대"속에 나오는 예기 한 토막이다.

오늘은 광주 시내에 나가면 최후만 남은가든 거리를 뒤 덮고있다. 5·18광주 민주항쟁 10돌이 돌아오고 있다.

그들의 이름을 몽땅 팔아 넘겨버린 것이었다.

인류학자 레카스트루스가 쓴 "슬픈 열대"속에 나오는 예기 한 토막이다.

오늘은 광주 시내에 나가면 최후만 남은가든 거리를 뒤 덮고있다. 5·18광주 민주항쟁 10돌이 돌아오고 있다.

그들의 이름을 몽땅 팔아 넘겨버린 것이었다.

인류학자 레카스트루스가 쓴 "슬픈 열대"속에 나오는 예기 한 토막이다.

오늘은 광주 시내에 나가면 최후만 남은가든 거리를 뒤 덮고있다. 5·18광주 민주항쟁 10돌이 돌아오고 있다.

그들의 이름을 몽땅 팔아 넘겨버린 것이었다.

인류학자 레카스트루스가 쓴 "슬픈 열대"속에 나오는 예기 한 토막이다.

오늘은 광주 시내에 나가면 최후만 남은가든 거리를 뒤 덮고있다. 5·18광주 민주항쟁 10돌이 돌아오고 있다.

였다. 사연인즉 스님으로 광주근처를 수행하던 중 광주항쟁이 일어나 무모한 시민들이 무참히 군인들에 의해 쓰러지는 걸 목격하고 도저히 참을 수 없어 함께 참가했다가 군인들의 총에 맞아 그렇게 된 것이었다.

출가한 스님이 장에지가 되어 정신도 못하고 환속하여 민화가로 살고 있었다. 작년에 국회 광주 청문회를 T.V로 바라 보면서 나는 레카스트루스의 "슬픈 열대"의 병사와 민화가가 그 화가게 그

스님을 때 울리면서 울적 죽음을 맞는 분노가 일었다. 진실이란 이름의 역사가 국외의 사망에서까지 무참히 짓밟혀진다는 분노 말이다. 그러면서 내 입속에선 한동안 정치하는 놈들이란 "개새끼"라는 욕지거리가 끊임없이 맴돌았다. 진실을 통정하는 국회를 어느 국민이 신뢰 할 것이며 그 작자들이 국민을 위한 저급 나라꼴이 어찌 되고 있는가.

다시 5·18은 돌아오고 나뭇잎속에서 가려진 새들은 우는 데 우리의 민족은 어디서 편히 울수는 있는걸까. 如 然

였다. 사연인즉 스님으로 광주근처를 수행하던 중 광주항쟁이 일어나 무모한 시민들이 무참히 군인들에 의해 쓰러지는 걸 목격하고 도저히 참을 수 없어 함께 참가했다가 군인들의 총에 맞아 그렇게 된 것이었다.

출가한 스님이 장에지가 되어 정신도 못하고 환속하여 민화가로 살고 있었다. 작년에 국회 광주 청문회를 T.V로 바라 보면서 나는 레카스트루스의 "슬픈 열대"의 병사와 민화가가 그

스님을 때 울리면서 울적 죽음을 맞는 분노가 일었다. 진실이란 이름의 역사가 국외의 사망에서까지 무참히 짓밟혀진다는 분노 말이다. 그러면서 내 입속에선 한동안 정치하는 놈들이란 "개새끼"라는 욕지거리가 끊임없이 맴돌았다. 진실을 통정하는 국회를 어느 국민이 신뢰 할 것이며 그 작자들이 국민을 위한 저급 나라꼴이 어찌 되고 있는가.

다시 5·18은 돌아오고 나뭇잎속에서 가려진 새들은 우는 데 우리의 민족은 어디서 편히 울수는 있는걸까. 如 然

였다. 사연인즉 스님으로 광주근처를 수행하던 중 광주항쟁이 일어나 무모한 시민들이 무참히 군인들에 의해 쓰러지는 걸 목격하고 도저히 참을 수 없어 함께 참가했다가 군인들의 총에 맞아 그렇게 된 것이었다.

출가한 스님이 장에지가 되어 정신도 못하고 환속하여 민화가로 살고 있었다. 작년에 국회 광주 청문회를 T.V로 바라 보면서 나는 레카스트루스의 "슬픈 열대"의 병사와 민화가가 그

스님을 때 울리면서 울적 죽음을 맞는 분노가 일었다. 진실이란 이름의 역사가 국외의 사망에서까지 무참히 짓밟혀진다는 분노 말이다. 그러면서 내 입속에선 한동안 정치하는 놈들이란 "개새끼"라는 욕지거리가 끊임없이 맴돌았다. 진실을 통정하는 국회를 어느 국민이 신뢰 할 것이며 그 작자들이 국민을 위한 저급 나라꼴이 어찌 되고 있는가.

다시 5·18은 돌아오고 나뭇잎속에서 가려진 새들은 우는 데 우리의 민족은 어디서 편히 울수는 있는걸까. 如 然

였다. 사연인즉 스님으로 광주근처를 수행하던 중 광주항쟁이 일어나 무모한 시민들이 무참히 군인들에 의해 쓰러지는 걸 목격하고 도저히 참을 수 없어 함께 참가했다가 군인들의 총에 맞아 그렇게 된 것이었다.

출가한 스님이 장에지가 되어 정신도 못하고 환속하여 민화가로 살고 있었다. 작년에 국회 광주 청문회를 T.V로 바라 보면서 나는 레카스트루스의 "슬픈 열대"의 병사와 민화가가 그

스님을 때 울리면서 울적 죽음을 맞는 분노가 일었다. 진실이란 이름의 역사가 국외의 사망에서까지 무참히 짓밟혀진다는 분노 말이다. 그러면서 내 입속에선 한동안 정치하는 놈들이란 "개새끼"라는 욕지거리가 끊임없이 맴돌았다. 진실을 통정하는 국회를 어느 국민이 신뢰 할 것이며 그 작자들이 국민을 위한 저급 나라꼴이 어찌 되고 있는가.

다시 5·18은 돌아오고 나뭇잎속에서 가려진 새들은 우는 데 우리의 민족은 어디서 편히 울수는 있는걸까. 如 然

였다. 사연인즉 스님으로 광주근처를 수행하던 중 광주항쟁이 일어나 무모한 시민들이 무참히 군인들에 의해 쓰러지는 걸 목격하고 도저히 참을 수 없어 함께 참가했다가 군인들의 총에 맞아 그렇게 된 것이었다.

출가한 스님이 장에지가 되어 정신도 못하고 환속하여 민화가로 살고 있었다. 작년에 국회 광주 청문회를 T.V로 바라 보면서 나는 레카스트루스의 "슬

社說

파업본질 파악—적극참여가 해결책

본교 직원노조가 단체협상 결렬로 파업을 단행한지 오늘(16일)로 8일째에 접어들고 있다.

대학을 구성하고 있는 주체의 하나인 직원들이 일주일 넘게 파업을 강행할 수밖에 없도록 방치한 학교당국은 대표로서 먼저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이다.

당초 노조에서는 지난달 23일 임금협정 문제로 서울시 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발생 신고서를 접수시킴으로써 사실상 학교당국과의 협상이 원활하지 않음을 시사, 어차피 진통은 예상된 것이었다.

현재 파업중 단재교집이 있어 가장 쟁점화 된 내용은 '기구개편'과 '인사제도 개선안'의 두가지로 대별되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노조측은 행정의 지속성과 전문성을 추구하기 위해 부수 이상으로만 임명하게 되어있는 기획조정실장을 부총장 이상의 직위로도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 현재 행정체계의 총무처를 분할하여 합리적 체계를 이루자는 것, 또 직원인사의 합리화와 공정성을 위해 총장 자문기구인 직원인사위원회에 노조대표를 포함시켜 달라는 발전적 차원의 요구들이다. 반면 학교당국에

서는 보직인용에 관계 강제조항이 보다는 인용권자의 재량사항으로 보는 것이 마땅하므로 이를 명문화 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고 아울러 직원인사위원회에 노조대표가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도 인사위원회의 기능이 조합원이 아닌 직원의 인사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노조대표의 참여 또한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단체협상자체가 요구사항이 몇 퍼센트 더 반영되게 하느냐 하는 차원보다는 양자가 핵심관건에 만나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현실 조건들을 향상시켜 내기 위한 것이라 할때 현재 보여주고 있는 학교당국의 모습은 사실 바람직 하다고는 볼 수 없다.

학교발전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논의의 시간과 방법을 제한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그러나 그것이 조급이라도 불만을 키친다면 숙고해야 할 것이다.

지금 노조파업을 바라보며 다시한번 생각해 볼 것은 본교의 대표, 협상의 주체, 학교의 중심의 한주체가 학교당국이라는 점에서 학교당국의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광주총회, 힘있는 투쟁전개할 갈림길

민자당이 해체의 초입기에 들어갔다.

미국과 노태우정권의 식민주의정화구도로서 현실화되었던 친미파소아합으로의 민자당은 전민중적인 투쟁으로 붕괴적정에 와있다. 울산현대중공업노동자들의 목숨을 건 골리앗크레인 단식농성으로, KBS사원들의 방송자주화투쟁으로 가시화된 반민자당투쟁은 5월9일의 전국적인 가두시위로 강위해되고 있다.

이렇게 격변하는 정세속에서 노태우정권은 김근태부총수, 송갑석전대외장 소환, 전민중간부추방의 발악적 저항을 계속하고 있다. 이제 청년학생의 역할은 분명해졌다. 즉 그동안의 투쟁을 단결된 대외로 묶어내야 하는 통일적 입부와 전위대로서 대중의 선봉에서 싸워나가기라는 역할과 임무를 갖는 것이다. 이런 시점에서 단결 투쟁과 투쟁노선을 둘러싼 대외보장은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또 하나의 중요사안이다. 광주총회를 둘러싼 비판과 반박의 내용이 그것으로 이는 우리내부의 사상적 단결과 힘있는 투쟁을 전개하는데 매우 중요한 갈림길이 될것으로 보인다.

광주에서 진행하기로 한 전대협출범식과 광주10주년기념식, 그리고 20일의 국민대회는 우리가 어떻게 현재를 바라보아야 하는가라는 총체적 물음을 던져준다. 광주

는 친미파소아합으로 나타난 민자당과 미국의 본질에 대해 중요한 점을 시사한다. 광주학생을 통해 남한 민중은 미국의 본질과 남한사회 변혁전망에서의 역할을 명확히 알 수 있었다. 그렇기에 광주총회는 미국과 노태우정권의 본질을 타격해나가는 중요한 고리가 될 수 있다.

서울에 남아서 투쟁하는가 광주에 내려가서 투쟁하는가 광주총회는 미국과 노태우정권의 본질을 명확히 할 수 있으며 앞으로의 단결된 투쟁노선을 내놓을 수 있는 점에서 핵심적 투쟁이 될 수 밖에 없다.

그러하기에 광주학생들중간에 있을 전대협출범식과 국민대회에서 힘있는 투쟁방향을 내이고 10월에 있을 유엔총회에서 두개의 한국 고착화유보문제투쟁을 준비하는 자세로 민자당과 그의 배후세력 미국을 타격해 나가는 투쟁을 해야 하는 것이다. 노태우정권과 미국이 두려워하는 것도 바로 이것이다.

그들은 더이상 자신들의 식민주의 종속관계가 대중적으로 되는 것을 원치않는다. 광주총회를 통해 이같은 그들의 본질을 들춰내고 진정 우리의 주권이 미국과 민자당, 그리고 배반자본주의 민자당과 동맹자본주의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일사의 피'는 '몸'으로 치유되는가



延基榮 (법대교수·민법)



延基榮 (법대교수·민법)

필살야합을 통해 이루어진 3당합당으로 광주민중항쟁의 역사가 왜곡되고 그 정신이 실종되어 가고 있다. 지난해 12·15 청와대 4자회담에서 '광주시민'의 명예를 회복하고 사당자 유족과 부상자에 대해 보상을 실시하기 위해 조속히 입법하기로 했다고 공식적인 발표가 있었으나, 반민주·독재연합으로 인하여 아직도 법안통과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민중항쟁 10주년을 맞고 있지만 아직도 항쟁의 진실은 완전히 밝혀지지 못한 채 허공을 맴돌고 있다. 그날의 진실을 위증과 왜곡으로 가리워졌고 그날의 아픔이 치유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다. 신정지 군부세력의 반민중적 불법행위가 은폐된 채 아직도 그들의 치부와 독재권력은 정국을 혼돈과 진동으로 불어넣고 있다. 5월 그날의 아픔을 마무리짓

구령이 담념어가는 광주피해배상법

광주민중항쟁의 상층은 단순한 개별보상의 차원이 아니라, 총체적 집단배상을 통해 이루어야 한다. 개별보상은 광주나 전남 또는 호남지역을 고립화시키고, 단순한 지역사태로 축소하여 전국민적인 요구에 따른 '민중항쟁'의 본질을 왜곡·은폐시키려는 의도이다. 국헌보다도 민주주의를 위해 신군부세력의 집권야욕에 있었고, 계엄군의 과잉진압으로 수많은 인명이 살상되었다는 기본 인식속에서 '배상법'이어야 한다고 법안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 법안은 공권력의 불법적 과잉행위의 인정과 명예회복조치에 따른 '배상'을 주요 골자로 한다.

광주민중항쟁의 상층은 단순한 개별보상의 차원이 아니라, 총체적 집단배상을 통해 이루어야 한다. 개별보상은 광주나 전남 또는 호남지역을 고립화시키고, 단순한 지역사태로 축소하여 전국민적인 요구에 따른 '민중항쟁'의 본질을 왜곡·은폐시키려는 의도이다. 국헌보다도 민주주의를 위해 신군부세력의 집권야욕에 있었고, 계엄군의 과잉진압으로 수많은 인명이 살상되었다는 기본 인식속에서 '배상법'이어야 한다고 법안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 법안은 공권력의 불법적 과잉행위의 인정과 명예회복조치에 따른 '배상'을 주요 골자로 한다.

신군부세력의 집권야욕에 있었고, 계엄군의 과잉진압으로 수많은 인명이 살상되었다는 기본 인식속에서 '배상법'이어야 한다고 법안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 법안은 공권력의 불법적 과잉행위의 인정과 명예회복조치에 따른 '배상'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 들어서면서 「광주민주화운동」으로 부르게 되어 형식적으로나마 명예회복의 첫 단계를 밟았다. 그러나 실질적인 명예회복을 위한 관계법안이 만들어지지 않았고 광주학생들의 진상이 밝혀지지 않았다. 민자당의 '보상'법안이 나왔으나 평민당의 '배상'법안이 부처지타협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치권의 당리당략에 얽매어 명예회복은 커

5월의 아픔 마무리는 희생자의 명예회복 과 학살주역의 단죄판

범행위가 너무도 눈에 선하다 (특히 최근에 광주민중항쟁 10주년을 기념하여 국회 광주특위 활동에 직접 참여하여는 정상을·유시민등이 항쟁의 진실을 밝히고 국민적 단결을 고발하려고 쓴 「광주민중항쟁—다큐멘터리 1980—」, 둘째해, 1990등을 보면 가슴이 더욱 아프다).

평민당은 '국회청문회를 통하여' 광주학생들의 발생동기가

부두세력에 저항권을 행사한 '정신'을 앞세운 위장적 배상이나 반영되어 있다. 그밖에 광주항쟁과 관련된 유죄확정자는 특별제정을 청구할 수 있게 하며, 해적 공무원 등의 복귀 또는 명예회복이 이루어지도록 규정해야 한다. 사망자의 묘지는 국가유공자와 같은 수준으로 성역화하여 관리·보존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부상자에 대하여는 의외로

원 유족에 대하여는 생활보조 지원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다. 민자당이 10년을 끌어온 광주학생들의 무거운 짐을 다스려도 떨어버리면 평민당과 광주시민들이 주장하는 '보상금'이 아닌 '배상금'의 지급과 명예회복의 요구를 하루속히 받아 들여야 마땅하다. '폭동'과 '난동'으로 매도함으로써 광주항쟁관련자들이 받은 정신적 피해와 불명예를 하루속히 없애 주기 위해서는 '광주민중항쟁 희생자 명예회복 및 배상법'이 하루속히 제정되어야 한다. 이 법안은 공권력의 불법적 과잉행위의 인정과 명예회복조치의 민주화를 지향하는 투쟁이었다는 역사적 실적을 갖는다. 따라서 이를 단순한 지역감정의 표출로 파악하는 시각에서 벗어나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참담했던 비극임을 새롭게 인식해야 한다.

올해는 열번째 맞이하는 광주항쟁의 5월절을 앞둔 시점에서 4월혁명 30주년, 한국전쟁 40주년의 해이기도 하다. 한국전쟁의 서러움에서 해방되고 싶

이전다. 아직도 민주헌정의 세날을 열지 못하고 있는 최후의 과 부끄러움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면서, 죽음의 공포를 넘어 항쟁했던 광주학생들의 명예회복과 손해배상이 시급히 이루어 지지 않으니 유감이다. 민중의 광주항쟁은 결코 실종될 수 없다는 역사적 과제를 같이 인식할 대외로 굳게 믿는다.

동지가 쓰러졌습니다

진태의 실명은 폭력정권 타도로 치유

봄입니다. 분노의 계절 5월이 어떻게 신통하는 서늘한 봄입니다. 최후의 난무하고 피가 비처럼 쏟아져 내리는 폭력정권의 계절입니다. 폭력 살인정권에서 학우들의 희생이 이어지고 이 땅 어머님들의 가슴에 슬픔이 서퍼린 비수로 들어와 꽃하는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진태 학우의 희생은 이제 더이상 가족, 친구들만의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동아의 모든 학우가 부동계 안아 격려하고 싸워 나가야 할 바로 우리를 자신의 문제로 폭력정권 타도 투쟁으로 풀어가야 할 구조적이고 계속적인 문제임에 틀림없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그 희생당한 모든 민주 열사와 그 가족들의 염원과 하나로 만나는 것이며 앞으로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를 민주 체제에 바쳐진 최후의 피의 희생과 하나로 이어지는 사천만 온 민중의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민중의 생존권을 바탕으로 내뿜고 온 것 불법, 폭력을 휘둘러대는

다하여 투쟁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진태는 더 이상 사회파의 진태가 아닙니다. 동국대만의 진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형이고 동생이자 벗이요, 뜨거운 자주·민주·통일 투쟁의 의지를 함께 하는 우리 모두의 동지인 것입니다.

학우 여러분, 언제쯤이나 될까요. 이땅에서 피비린내가 가시고 최후만이 자취를 감추고 우리 부모 형제들의 가슴에서 분노와 슬픔의 파도들이 걸쳐 화사한 신록의 5월이 구경없이 피어날 그날은 도대체 언제쯤 일까요.

학생회관 화재 왜 발생했나

지난 4일 새벽1시경 학생회관2층에 큰불이 일어났다는 것은 학생회관에서 생활하고 있는 학우들이라면 거의 모두 알고 있을 것이다. 당시 당직으로 근무했던 수위아저씨의 말을 빌리자면 학생회관건립후 이만큼 크고 재가 발생한적이 없었다고 한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정확한 화원이 밝혀진 않

다한 점이다. 학생회관내 학우들의 생활모습을 보자. 거의 매일밤 술에 취한 학우들이 잠을 자러 단련된 서너문을 밀치고 들어온다. 수위아저씨에 의하면 술에 취한 학우들에 의해 현관문이 부서지거나, 혼수이 이뤄진다고 한다.

이러한 모습들속에서 이번 화재는 '한번쯤은 생겨날 수 밖에 없는 일'들의 하나일 것이다.

잔디밭 복구운동을 제안한다

'메마른 등막' 살리기 위한 노력 필요

몇해 전만해도 상상하고 풀을 잔디를 볼 수 있었던 불쌍한 잔디밭이 날이 갈수록 황폐해져나 5월연계 사색과 토론에 안상미충이던 좋은 공간으로서 본래의 역할까지 퇴색해 버린 듯한 감이 없지 않다.

학내의 문제로 크고작은 집회가 잦은 도서관에는 아예 잔디를 구경하기조차 힘이 들 정도로이고 학생들의 무단행위로 강외로 향하는 곳의 지름길이 나 있는 곳도 있다.

이 광장은 단순히 몇몇 건축물에 둘러싸인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전 동학인의 하나됨을 가꾸어 나가는 자치의 장이자 마당이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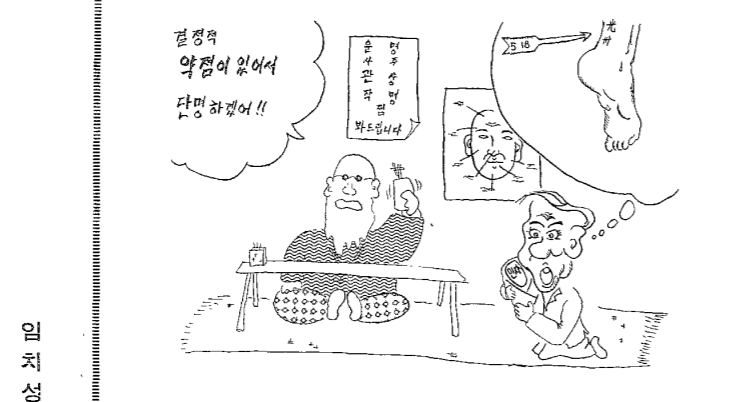
대학의 테두리속에서 학생회관은 많은 동아리들이 모여있는 가장 대표적인 자치공간일 것이다. 자치라는 말속에는 책임 내포되어 있음 또한 물론이다.

우리가 스스로의 책임을 저버린다면 도대체 누구의 보살핌을 받을 것인가.

이 경숙 (사법대·교육학과)

백종균 (문과대·철학과)

東國漫評



◆민자킬레소건

언론협의회 출범 선언문

동국의 일반 애국학우여러분! 피문은 진달래빛 깃발을 온몸으로 부여잡고 노태우와 민자당의 가슴에 서슬퍼런 주창으로 꽂힌 '동국대학교 언론 협의회'가 광주 영명의 함성이 아직도 우리의 귓가에 생생히 울리는 혁명의 5월에 정식으로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87년 6월 항쟁이후 가속화된 언론의 민주화 욕구에 대해 89년 5월 6일 대학신문 이원화조치라는 미명하에 편집의 자주권을 내세우는 신문사 기자들을 구속하며 현 정권의 폭압성을 드러내더니 지난 4월 27일 유성관광호호텔에서 열린 전국대학신문 주간교수 협의회 춘계 세미나에 참석해 교수들에게 이념성 정도에 따라 평점을 매겨 대학신문 검열을 강화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작금에는 국민의소리로 거듭 태어나고자 하는 KBS에 공권력을 투입, 방송자주권을 짓밟고 취재기자들을 폭행하는등 민자당 합당이후 갈수록 그 폭압성은 더해만가고 현정권의 언론장악모를 노골화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민자당은 '총체적 난국'이니 하며 우리노동형제들의 생존권요구를 독점자본가와 결탁, 갈갈이 찢어놓고 전 민중민주운동을 잔인무도하게 탄압하며 정권유지를 위해 온갖 만행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정세속에서 우리경주캠퍼스 언론3사(동대신문사·교육방송국·시립편집위원회)는 이제까지의 고립분산적이고 비생산적인 모습을 과감히 극복, 구체적모습으로 통일된 언론전선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학원의 비민주적 제도와 사상, 그리고 저질퇴폐문화를 척결함과 아울러 자주화된 학원, 민중이 주인되는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자는 목표 아래 모든 진보·민주세력과 연대투쟁의 결속을 다지려 합니다.

아울러 학우여러분과 함께 생활하고 함께 생각해 학우들의 요구와 정서를 철저히 반영하며 조국과 민중이 식민의 사슬에서 해방되는 날까지 앞서서 열사의 모범을 따라 언협일꾼들은 투철한 사명감으로 전진해 나갈것을 선언합니다.

일만학우 총단결로 민자당을 박살내고 노태우정권 타도하자!
언론전사 강철동맹 노동해방·민중해방으로 총진군하자!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언론협의회의

민중언론쟁취 원년 5월16일

일만학우 총단결로 민자당을 박살내고 노태우정권 타도하자!

언론전사 강철동맹 노동해방·민중해방으로 총진군하자!

◆글심는 차례

1. 페레스트로이카 총론
2. 경제개혁의 쟁점과 논리
3. 정치개혁의 쟁점과 논리
4. 평화공존의 쟁점과 논리
5. 자주적 대응전략

1921년 '당의 숙청에 대하여'라는 글에서 레닌은 말한다. "대중과 유리된 본자는 당에서 숙청되지 않으면 안된다. ... 아무런 특권이나 높은 관리와의 연줄도 없는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분자들과, 성실하고 헌신적인 공산주의자 사이를 근로대중은 매우 민감하게 포착하는 법이다. 당의 근로자의 지적을 고려하면서 당을 숙청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당의 혁명성과 대중성, 순결을 보위하라는 레닌의 뜻을 받들어 볼셰비키당은 스탈린의 통치시기를 통하여 무려 150만 명-이것은 순전히 서방학자들의 추정치이다-의 당내 중요분자와 부패한 관료분자를 당과 국가기관에서 숙청했다. 여기에는 당의 분열과 위기를 획책하는 정치적 반대자들도 일부 포함되었다.

그러나 스탈린의 사후, 당의 정책과 타락을 방지하기 위한 레닌주의적 방법의 하나인 '숙청'은 이론적으로도, 실천적으로도 폐기되고 만다. 흐루시초프시기의 당이론가 코를로프는 "숙청이 필요했던 것은 국내의 격렬한 계급투쟁 조건 때문이었다. 지금은 전제적인 공산주의 건설기로서 국내에 전권자의 정권, 정치적 단결이 이루어졌으므로 그와같은 조치는 필요없다" ("소련 공산당 규약에 관한 보고", 1961) 고 말했다. 이러한 아류마음-그러나 안이한 '회상사'는 당의 숙청이라는 자기정화 메커니즘을 제거함으로써 소련공산당을 오늘날과 같은 관료주의의 온상으로 만드는 데 일조하였다.

신용 기술·행정관료층의 대두

관료제의 발전·강화는 경제의 중앙집중화에 따른 불가피한 역사과정이다. 문제는 사회주의적 관료제가 자체가 아니라 그로부터 야기될 수 있는 '관료주의'의 폐단에 있다. 관료주의의 해독은 사회운동의 한 방식으로 정착한 관료제가 인민대중과 당의 의식적 통제로부터 벗어나 하나의 독자적 메커니즘으로 사회생활을 지배하고 근로대중을 소외시킬 때 발생한다. 그것은 인민대중의 자주적 권리를 침해하고 혁명적 열의와 창조성을 떨어뜨리며, 지도적 정치세력과 대중간의 연대를 파괴함으로써 사회내부의 모순을 격화시킨다. 따라서 관료주의에 대한 당의 투쟁은 당에 대한 대중의 신뢰와 지지율 유지, 강화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정치사업의 하나가 된다.

스탈린은 일찍이 "프롤레타리아 독재와 당의 지도적 역할(당의 '독재')을 동일시하거나, 후자로서 전자를 대신할 수 있다고 이해해서는 안된다" ("레닌주의의 기초에 대하여", 1924)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그의 이러한 인식에도 불구하고 소련사건계의 특수한 역사적 조건들-특히 내전과 계급투쟁의 격화, 파시즘의 대소침공위협과 마침내 독·소전쟁 등-은 국가기관과 사회일반에 대한 당의 전일적 지도

하나의 계층적 이해를 형성한다. 이들은 대체로 '탈이데올로기화'되는 경향을 보이며, 중류분위의 사고방식을 갖는다. 앞서 지적했듯이 흐루시초프 이래의 당 숙청의 폐기는 이러한 조류에 대하여서 당의 이념적 순결과 사상적 경각, 대중에의 헌신성을 보위할 무기를 제거함으로써 이들이 당을 강악하는 것을 허용하게 된다.

이러한 역사적 맥락에서 성장하여 마침내 당과 국가의 지도부를 장악한 신용 기술 '행정관료층'(테

혁 등을 시도하는 정도였다. 그러나 1988년의 제19차 전당협의회를 분기점으로 하여 정치개혁은 새로운 국면으로 이행한다. 협의회는 ①복수후보제, 선거운동의 보장 등 선거제도의 민주화, ②국가기구의 재편과 대외기구의 권한 강화, ③당과 국가기관의 분리, ④지방자치의 역할 향상 등을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당기관으로부터 정부기관으로, 그리고 중앙으로부터 지방과 하급기관으로 권한이 대폭 이양되고, 새로운 인민대의원선

원 542명 가운데 68.1%를 상층과 중간층 관리직(당, 정부, 기업, 학술단체 등)이, 12.5%를 중류기술자층이 차지한 사실을 보더라도, 형식적 민주주의의 확대가 결코 생산노동자와 근로농민의 대표성을 강화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이념지향적인 당의 통제를 약화시키고, 국가기구를 독립 강화시킴으로써 직접관료제의 자리잡기와 제도적 고착화만을 결과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이성과 같은 정치적 합의를 지닌 장되어 있는 계급적 본질이다. 다시 제기되는 프롤레타리아독재의 문제

소련의 신용 기술관료층이 제기하고 있는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전인민의 국가'를 기초하고 있다. "소비에트정치는 이른바 전인민의 국가를 새로운 경제적·사회정치적 기반에 기초한 사회주의 국가체로의 합법적인 발전단계로 간주한다. ...적대적 계급모순이 존

재하는 프롤레타리아독재는 세계인민의 진보적 변혁운동을 압살하려는 계급주의의 무력개입을 견제하고 후발사회주의국가를 경제적·정치적으로 원조해야 할 국제적 임무를 지닌다. 프롤레타리아독재는 각국의 구체적인 특수성과 시대의 일반조건에 따라 다양한 형태와 경로를 밟을 수밖에 없지만 그것의 본질은 어디에서나 동일하다. 나라에 따라선 다당제 하에서도 그것은 관찰될 수 있지만, 하나의 강령이래 정당성을 결집시킬 수 있을 때에만 그러하다.

프롤레타리아독재를 폐기한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는 결국 비프롤레타리아적 본성의 지나치지 않는다. 그것은 인민대중의 강화로 귀결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가지는 계급·계층적 성격을 명확히 인식하는 것만이 과학의 올바른 잣대가 될 것이다.

김세걸 (사상과 정치경제연구소·연구원)

'시장경제' 구축다른 상부구조 구축의미



◇>우파사적 역량 노동자들의 파업시위 그들이 들고 있는 플래카드에는 '우파진보를 소비에트 인민들에게'라는 주장도 있었다.

정치개혁, '사회주의적 다원주의' 제도화과정 다당제... 동일강령으로 결집할때 피티독재 가능

와 통제의 강화를 조태했다. 비상한 조건 하에서 당의 정책이 인민의 이익에 부합되고, 인민의 대다수가 당의 정책을 지지하는 한 당의 독재(곧 당의 권력독점)는 본질적으로 프롤레타리아독재에 대립되지 않는다. 그러나 문제는 역사적 조건이 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이 새로운 조건과 과제를 맞게 자신의 존재형식과 체질을 개선하지 못한 데 있다.

스탈린 시대에 구조화된 당과 국가의 관료제는 그 후 시대의 대중의 요구에 맞게 쇠퇴하지 못한 채, 남보다 기능적 능력이 우월한 일부 지식인층의 출세주의의 도구로 이용되는 측면을 갖게 된다. 다시말해 사회가 안정화되면서 당과 국가가 요구에 진출한 일부 지식인층-이들은 주로 당 아카데미(당외의 행정요원), 국가행정관료, 기업의 상층관리인, 언론계와 학계의 고급지식인 등으로 존재한다-은 일정한 사회적 특권을 누리면서 독자적인

거버넌스 체택된다. 이러한 개혁에 대해 고르바초프는 "인민의 사회주의적 자치의 이론과 실천을 대외적·외회민주주의(행정과 입법의 명확한 분리와 사법의 독립을 보장하는)와 변증법적으로 결합"("사회주의사상과 혁명적 페레스트로이카", 1989)한 것이라고 평가한다. 그의 핵심은 3권분립의 원칙에 입각하여 소비에트의 의회로서의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당과 정부의 독주를 견제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확실히 인민의 직접적인 의사표현의 기회가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과 관료주의의 폐단을 감축·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함의되어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선거제도의 개선과 의회기능의 확대도 정이 과정 노동자계급의 실질적인 정치참여와 권력강화를 현실적으로 합법화된 권력구조의 구축과 행정적 합리성, 효율성을 향상시킬 것을 목적으로 인사쇄신과 기구

고르바초프 정치개혁의 기본성격은 무엇인가? 그것은 새로이 대두되고 있는 소련의 기술·행정관료층의 이익과 사고를 대변하여 이념지향적인 당대 보수를 무력화시키고, 시장사회주의의 확대도입에 따른 정치적 상부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고르바초프는 이를 "시민사회와 법치국가 메커니즘의 창출"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곧 "사회주의가 발전함에 따라 사회의 사회적 동질성이 높아진다는 그간의 전제 가 일면적이었음이 분명하다. 단일한 국가적 소유형태를 대신해서 생겨나고 있는 다양한 사회주의적 소유형태는 사회적 동질성의 성장이 문화의 강화를 동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계급주의시대에 있어서 프롤레타리아독재는 비단 일국적 조건에 의해 성격지어지지 않는다. 일국에서의 발달한 사회주의도 세계적 규모에서 사회주의의 전면적 승리가 실현되지 않는 한 프롤레타리아독재를 포기할 수 없다. 이때

시기전제로 보았다. 따라서 사회의 계급적대가 사라졌다 해도 계급적이 남아 있는 한, 그리고 이 차이로부터 계급모순이 다시 발생,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한 프롤레타리아독재는 폐기될 수 없다. 비록 엄밀한 기준은 사라진다해도 지도적 기능으로서 그것은 여전히 존속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레닌은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프롤레타리아와 비프롤레타리아(농민과 근로인텔리 등)간의 계급동맹으로서 파악하였다. 곧 계급동맹체로서 프롤레타리아독재는 전인민의 민주주의와 대립되지 않으며, 후자를 위해 전자가 폐기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이것이 그의 추상적 휴머니즘과 민주주의론에 포

지적이지 않다. 프롤레타리아독재는 세계인민의 진보적 변혁운동을 압살하려는 계급주의의 무력개입을 견제하고 후발사회주의국가를 경제적·정치적으로 원조해야 할 국제적 임무를 지닌다. 프롤레타리아독재는 각국의 구체적인 특수성과 시대의 일반조건에 따라 다양한 형태와 경로를 밟을 수밖에 없지만 그것의 본질은 어디에서나 동일하다. 나라에 따라선 다당제 하에서도 그것은 관찰될 수 있지만, 하나의 강령이래 정당성을 결집시킬 수 있을 때에만 그러하다.

프롤레타리아독재를 폐기한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는 결국 비프롤레타리아적 본성의 지나치지 않는다. 그것은 인민대중의 강화로 귀결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가지는 계급·계층적 성격을 명확히 인식하는 것만이 과학의 올바른 잣대가 될 것이다.

용어해설

사회주의적 다원주의

소련공산당 정치국원이자 중앙위원회 이데올로기 소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한 V. 메드베제는 '코뮤니스트'지와 의 대담에서 다원주의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제기했는데 그 내용은 세가지 차원으로 요약된다.

첫째 차원은 위에서 V. 메드베제가 예기한 '의견의 다원주의'이다. 이 점에서 그는 글라스노스트, 서로 다른 의견의 허용, 종교정책에서의 성과 등이 나타나고 있다.

둘째 차원은 '이익의 다원주의'이다. 종래 인정하지 않았던 계급, 계급의 이익분화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이해의 차이에 따른 사회정책을 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셋째 차원은 '정치적 다원주의'이다. 정치의 다원주의를 인정하는 것은 시민의 정치와 국가에 대한 태도와 이해가 다르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소련사에 모순이 없다는 신화가 깨진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일당제에 대한 문제 제기로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필연성을 내포한다.

사회주의적 민주주의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라는 원칙은 추상적인 말로써가 아니라 인민의 사회주의적 자치, 시민사회의 형성, 법치국가의 메커니즘의 형성 등 현실의 메커니즘과의 동일 속에서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권력을 소비에트'라는 레닌의 슬로건을 들 것도 없이 참다운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인민대중의 의사를 대변하는 인민대의기관이 국가의 최고권력기관이 되어야 한다.

'대의제도 없이는 민주주의를 상상조차 할 수 없으며'(레닌), '사회주의의 본질은 진정한 인민권력의 확립'(고르바초프)인 것이다.

1990학년도 후기 대학원 학생모집

1990학년도 후기 신입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모집과정 및 학과

가. 석사과정

인문계: 불교학과·선학과·인도철학과·국어국문학과·영어영문학과·독어독문학과· 일어일문학과·사학과·미술사학과·철학과·국민윤리학과·연극영화학과·교육학과

사회계: 법학과·정치학과·행정학과·경찰행정학과·사회학과·경제학과·경영학과·무역학과·회계학과·농업경제학과·지리학과

자연계: 수학과·물리학과·화학학과·통계학과·농학과·임학과·조경학과·응용생물학과·전자공학과·전자계산학과·전기공학과·토목공학과·건축공학과·화학공학과·식품공학과·산업공학과·체육학과·가정학과·한의학과

나. 박사과정

인문계: 불교학과·선학과·인도철학과·국어국문학과·영어영문학과·사학과·미술사학과·철학과·국민윤리학과·교육학과

사회계: 법학과·정치학과·행정학과·경찰행정학과·사회학과·경제학과·경영학과·무역학과·회계학과·농업경제학과·지리학과

자연계: 수학과·물리학과·화학학과·통계학과·농학과·임학과·응용생물학과·전자공학과·전자계산학과·전기공학과·토목공학과·건축공학과·화학공학과·식품공학과·산업공학과·가정학과·한의학과

3. 시험과목

가. 석사학위과정

(1)시험과목: ①영어 ②전공 ③구술고사

(2)시험내용: 영어시험은 4개분량의 독해력 시험, 전공시험은 각 학과별로 공통필수 과목에서 출제하며, 구술고사는 각 학과별로 실시함.

나. 박사학위과정

(1)시험과목: ①영어 ②전공(공통, 세부전공) ③제2외국어 ④구술고사

(2)시험내용: 영어시험은 4개분량의 독해력 시험이며, 전공시험은 학과공통과목 및 세부전공과목에서 출제하며, 구술고사는 각 학과별로 실시함.

③제2외국어 부과학과: 인도철학과·국어국문학과·철학과·국민윤리학과·한의학과

③제2외국어시험과목: 불어·독어·일어·영어·한문·중국어 어휘(한·불어는 인도철학과, 한문은 국어국문학과·국민윤리학과·철(동양철학)학과에 한함)

동국대 출신 「문학인명록」 작성

韓國文壇의 핵심적 역할을 해온 東國대출신 文學人의 명부를 작성코자 하오니 아래 요령에 의거,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이름	아호	생년월일	작품명	년도
장르				
등단잡지(신문)				
저서(작품집)				
입학 및 졸업	19	년	월	학과 입학
	19	년	월	학과 졸업
주소(주택)			(전화)	
(직장)			(전화)	
희승일자	1990년 6월 2일까지			
보낼곳: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 100-715 서울 중구 필동 3가26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현장취재 미군행패 잦은 이태원을 찾아

자존심파는 "식민지 1번지"

오후 10시 40분의 이태원. 서울사내 상가가 문을 닫을 무렵, 서서히 활기를 띠기 시작하는 곳.

한국사람보다는 외국사람, 그중에서도 한때 오직 미군을 위해 존재하기도 했던 곳.

지난 1945년 해방되던 '점령군'으로 미군이 인천에 첫발을 디딘 이래 45년동안 미군의 한반도에 대한 수탈과 폭력은 잠시도 쉬일이 없었다.

미군법령의 은성이 되어 왔던 용산 미8군기지는 어느 시인의 말처럼 '식민지 1번지'가 되어왔고 우리에게는 이태원은 절곡의 지역이 되었다. 그 용산지역의 '텍사스'로 불리우는 이태원은 오늘도 비극이 계속되고 있다.

현란하게 반짝이는 네온사인 불빛과 거리로까지 울려나오는 요란한 디스코 음악들, 지나가는 한국사람사이로 무어라 지껄여대며, 뛰어들어가는 미군들, 또 이를 업소로 끌어들이기 위한 중업원들. 바로 이태원의 모습이다.

이태원에서도 가장 밝고 업소가 밀집되어 있는 곳, 소방서 옆 골목길이다.

천천히 걸어 올라가자니 업소 중업원들, 소위 '삐끼(Picky)'들이 옷자락을 잡아 끈다. "뭣보이십니까, 싸게해드리죠" "화끈한(?) 쇼 있습니다" 등을 물리치며 올라가는 길목에서 'M.P'알장을 두른 일련의 현병을 만날 수 있었다. M16등 무기를 소지했으나 실탄은 없는 듯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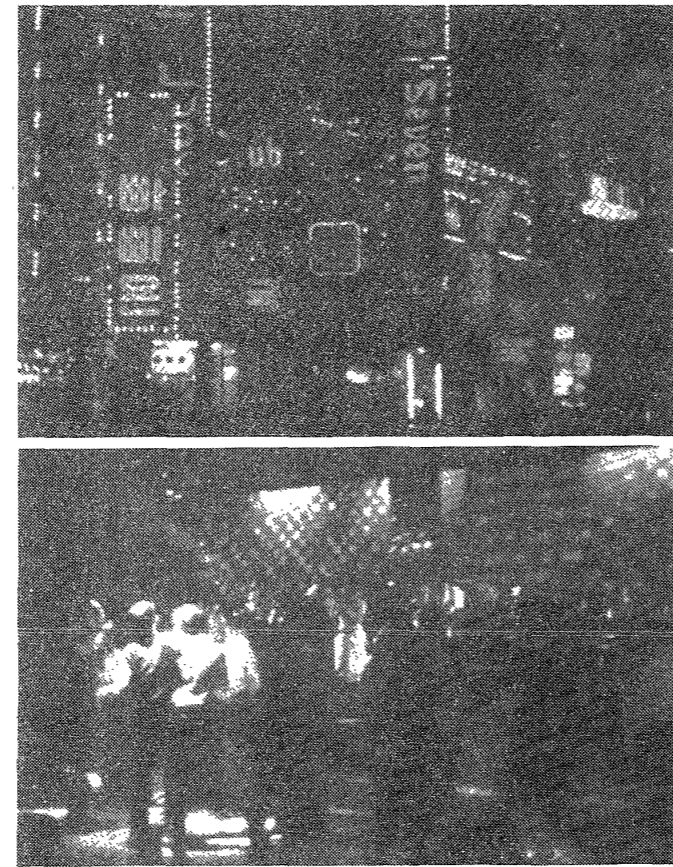
그 주변의 여자와 장년층이 즐기는 걸보니 말이 좋아 보초근무지 유혹을 즐기러 나온 군인 같았다. 기존의 곤질된 요정골에 Madonna 디스코클럽의 '삐끼' 박성순(27)씨와 간단한 인터뷰를 하게 되었다. 그의 명함엔 "7번에터 마방"이라 적혀 있었다.

"저분들은 돌아다닐때 애인과 함께가 아니라면 항상 3-4명씩 몰려다녀요. 자기들은 신변보호라지만 그보다 더 많은 수가 몰려다니지 않는 것 보면 사고치고 쟁쟁게 숨어 다니는 미군의 등에 손가락을 가리켰다. "그래도 요즘은 인제부 터진지 모르게 미군행패가 크게 줄은 편입니다. 몇년전에는 클럽 무회와 춤추며 외박을 요구하다 거절당하면 무회를 두들겨 때리는 일이 비일비재 했죠. 아마 대학생들의 '양키공'이 효과 났나봐요"라며 미소지었다. 몇달전에는 이 업소앞에서 미군 세명하고 한국사람과 싸우며 벌어진다는 얘기가 시시각각 들려왔는데 미군을 흥선 두들겨 때리는 얘기를 들었다.

"미군을 보면 제수 없습니다. 물론 똑똑하고 예절바른 미군도 간혹 있는데 애초다 감보(삐끼사이)의 속어로 성질 못났고 합법적이 있는 미군(병사)이나 글러오면 병고 손님에게 시비하는 등 골치아픈게 많

광주·이태원 등 곳곳서 골치이민민들 미군행패 지긋지긋해 무법지대

한두번이 아니죠"라고 말한 뒤 미군 철수가 10년만에 실행되는 것에 어떨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미군철수 해야죠. 으스스해 풀리기 싫어서라도. 그러나 미군이 철수해버리면 솔직히 제자신은 달갑지 않습니다. 미군을 못된것에도 주머니는 두둑하거든요. 우리도 살이 아조"라며 담배를 피워들었다. "그곳을 지나 조금 올라가자니 별안간 '드르릉 드르릉'하는 폭음과 함께 거대한 오토바이가 출현했다. 잠은 'T셔츠, 청바지에 무릎까지 닿는 쇠가 박힌 검은 부츠를 신고 검은 색의 미군의 등에 손가락을 가리켰다. "그래도 요즘은 인제부 터진지 모르게 미군행패가 크게 줄은 편입니다. 몇년전에는 클럽 무회와 춤추며 외박을 요구하다 거절당하면 무회를 두들겨 때리는 일이 비일비재 했죠. 아마 대학생들의 '양키공'이 효과 났나봐요"라며 미소지었다. 몇달전에는 이 업소앞에서 미군 세명하고 한국사람과 싸우며 벌어진다는 얘기가 시시각각 들려왔는데 미군을 흥선 두들겨 때리는 얘기를 들었다.



◇미군 범죄의 거대한 아지트인 이태원에서 우리 국민의 신음 소리는 언제쯤 멈춰질 것인가.

러지고 보였다. 이곳은 마치 영화속에서의 외국거리처럼 원지모르게 애정어 안가는 타인의 거리로 느껴졌다. 조금더 가까이 가면 피부의 외국인 셋과 미니스커트의 여자가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다. "Hey, Take a break with me?"의 질문에 "O.K."로 시작한 이들은 한참 동안이나 손가락을 꼽았다. 미군행패가 아니라 급기야 셋은 "Go to the hell"하며 돌아섰고 여자 역시 "씨발, 커져버려"라며 침을 뱉었다. 그녀에게는 이러한 일이 일상화되어 있는 듯 조금후면 다시 제갈거리며 동료와 어울렸다.

이곳 Gay골목에서 12년에 바베 큐어이를 하고 있다는 상인 김재석(48)씨는 미군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미군들을 발발했지만 그들의 돈 때문에 참고 삼니다. 여자가 원래 Gay골목이다 보니 아니라고 수가 뒤돌아서는 일이 많습니. 미군과 한국여자가 다정한 모습으로 BAR를 나와 다른곳(?)으로 향하는 것을 보면 율화가 치밀죠. 더우기 업소앞에서 미군을 찍으려는(손님)으로 끌어들이려는(한국여자의) 교묘를 보면 처음엔 민족적 분노와 더불어 미국에 대한 원한 같은 것이 느껴지더군요. 그러나 이젠 나 도 처치해버렸는지 그러려니 하고 지냅니다"라며 한숨지었다. 수고한다며 꼬치하나 더 구워주던 아저씨였

"다들 사람은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저와 같은 심정일 겁니다. 우리 미군을 상대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자존심을 팔고 있다는 생각이 자주 듭니다"라며 씩씩하게 웃었다. 팔라디움 디스코 클럽 앞에서 '전주집'이란 포장마차를 하던 '영숙'이라고 하던 어느 아주머니는 "포장마차안에서 다른 손님이 있는 데도 미군과 여자가 이상한 짓을 하기도 한다"며 "미군으로 얻는 것보다는 화나는 것, 없는 것이 더 많다"며 분평하기도 했다. 실제로 이 아주머니의 포장마차도 돈을 노린 2차에 걸친 '강보'의 습격(?) 때문에 파손되기도 했다.

한반도를 그들의 식민지로 생각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이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기초로 해서 미국은 민중당이라는 거대한 공중누각을 건설했다. 광주충회를 통해 분노의 화살은 민중당의 뒤에 숨은 미국에 집중되어야 할 것이다. 취재를 마치고 새벽택시에 오른 기자에게는 그토록 끈질기게 인터뷰요청을 해도 거절하던 한 Gay골목의 여자무서리가 메아리처럼 들렸다. "학생은 공부나 열심히 해, 미군 같은 놈 안 만나라" (남궁 은 기자)

노동자 고혈압 얼마나 짜내려나

노동법 개악 움직임에 관하여

올해초 경제단체협의회와 발족과 기민적인 친미반정부파가 이루어진 후 상공부와 경단협이 한통속이 되어 노동법을 개악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경단협은 외세지배하의 자본주의 사회인 남한에서 자본의 논리상 서로 충돌되던 독립자본과 중소자본을 하나의 틀로 묶어 세운 것이라 할 수 있다. 상공부와 경단협이 한통속이 되어 마련한 노동법개정 검토안의 문제점을 꼬집어본다. ▲근로기준법=상공부는 오는 10월부터 시행기로 돼 있는 법정 44시간 노동을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앞선 것"이라며 주 46시간 노동시간을 연장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선진국본주의 국가에서는 전혀 노동시간이 길지 않다. 현재 서독의 경우에는 단체협약을 통해 주 37시간 노동을 하고 있



며, 일본도 현행 46시간 노동에서 해마다 법정노동시간을 2시간씩 줄여 93년에는 주 40시간제를 실시하기로 돼있다. 따라서, 상공부가 노동시간 연장의 이유로 서독·일본등을 예로 드는 것은 전혀 타당성이 없고 설득의 방향을 위해 주 44시간제로 법을 개정할 뒤 아직 시행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철폐토록 주장한다는 것은 실로 황당무계 하다. ▲노동조합법=개악하려는 노동조합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노동자의 과반수 지지를 받는 노조에 한해서만 교섭권을 인정토록하

주 노동시간 46에서 48로 노조 정상적 활동 대폭위축 파업정당성 행정관청서 판결

고 노조원들의 자격을 3년 이상 근무자에 한하는 것이다. 이것은 노조의 정상적인 운영과 활동을 대폭 위축시키려는 조항임은 물론 보듯 뻔하다. 또 단체교섭권자에게 협약체결권을 전면적으로 부여토록 하는 것도 노조의 민주적정당성을 무시한 처사이다. ▲노동쟁의 조정법=개정하려는 노동쟁의 조정법의 내용을 보면 다

가하는 날이래" 혼들리는 버스안에서 연신 눈물을 닦아 내면서 이들의 이야기는 계속 되었다. "도대체 데모는 뭘하려 하나, 화염병던지다가 최루탄 쏘면 도망가면서 구호진치고 그들이 요구하는 걸 들어줄 것잖나. 그

정치는 놈들 싹 쓸어버려야 한다고 자주 말씀하시거든" 대화가 진행되는 사이 버스는 시위거리로 빠져나와 환적한 이들을 달리고 있었다.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머리가 희끗한 한 중년신사가 기침을 멈추고 앉은 채로 입을 열었다. "학생들, 대학생이 데모하고 경찰이 진압하는 것은 단순한 문제고 아니라네. 각기 나름대로의 명분이 있고 그걸 실현에 옮긴 것이 바로 오늘의 형태로 나타난 것일세. 그러나 한가지 분명한 것은 나라가 크게 잘못되어 있고 이것은 국민이 오늘처럼 지적해 주며 고쳐야 한다는 사실이야" 라고 말하고는 머리를 끄덕이는데 두학생을 두고 내렸다. 비록 시위에 참여한 시민은 아니었으나 그의 한마디는 기자에게 큰 힘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남궁 은 기자)

1990학년도 후기(야간) 행정대학원 학생모집

1. 모집과정: 석사과정, 연구과정, 행정관리과정
2. 모집학과 및 전공
 - ①행정학과: 일반행정, 공공정책, 관공행정, 지역개발, 언론홍보
 - ②안보행정학과: 외교국방, 방위산업, 군사전략, 북한학
 - ③안전관리학과: 안전관리
 - ④공인행정학과: 경찰행정, 사법행정, 소방행정, 교도행정
 - ⑤특지방정학과: 사회복지
3. 응시자격
 - ①석사과정: 학사학위 소지자(출신학과에 관계 없음)
 - ②연구과정: 석사과정에 준함.
 - ③행정관리과정: 가)정부 각기관의 5급이상 공무원 나)각군의 영관급장교 다)정부부처기관의 임원 라)사기업체의 임원
4. 원서교부 및 접수: 1990.6.14(목)~6.20(수)
5. 전형일시 및 장소: 1990.6.23(토) 14:00 본 대학원
6. 전형방법
 - ①석사과정: 전공(행정학), 서류전형 및 면접
 - ②연구과정, 행정관리과정: 서류전형 및 면접
7. 특전
 - ①공무원에게 졸업시까지 장학금(수업료 30%)을 지급함.
 - ②우등장학금, 총장장학금, 동문회장학금 등 장학특전이 있음.
 - ③사회복지 전공 졸업자는 1급 복지사 자격 취득.

*기타 자세한 것은 본 대학원 교학부로 문의 바랍니다. 전화 267-8131~9 (교)2263, 직통 267-8574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1990학년도 후기(야간) 경영대학원 학생모집

1. 모집과정 및 전공: 석사과정, 연구과정, 관리자과정
 - ①경영학과: 인사관리, 생산관리, 마케팅, 재무관리
 - ②회계학과: 관리회계, 재무회계, 세무회계
 - ③무역학과: 무역이론, 무역관리, 국제경영
 - ④경제학과: 관리경제, 국제경제
 - ⑤전자계산학과: 시스템스물레이선, 전자정보처리
 - ⑥노사관리학과: 노사관리
 - ⑦부동산학과: 부동산관리
2. 지원자격
 - ①석사과정: 4년제 대학졸업자 및 1990년 8월 졸업예정자. (비경상계도 응시할 수 있음)
 - ②연구과정: 석사과정에 준함.
 - ③관리자과정: 가)회사·사회단체의 간부 및 대표 나)노조간부 다)군교장급 이상 라)정부 각기관 5급이상 공무원
3. 원서교부 및 접수: 1990.5.28(월)~6.5(화)
4. 전형일시 및 장소: 1990.6.9(토) 14:00 본 경영대학원
5. 전형방법
 - ①석사과정: 영어, 논문, 면접
 - ②연구과정, 관리자과정: 서류전형 및 면접
6. 특전
 - ①해의 자매대학 등의 연수에 참가할 기회 있음.
 - ②전자계산학과 및 생산관리전공은 본교의 컴퓨터센터를 이용할 수 있음.
 - ③공무원, 교직원, 군인, 공인회계사, 노조간부(노사관리학과에 한함)에 대하여 장학금을 지급함.

*기타 상세한 것은 본 경영대학원 교학부로 문의 바랍니다. 전화 267-8131~9 (교)2273, 직통 267-8140

동국대학교 경영대학원

1990학년도 후기(야간) 교육대학원 학생모집

1. 모집과정 및 전공: 석사과정, 연구과정
 - ①교육학과: 교육행정전공, 교육경영전공
 - ②교과교육학과: 국어교육전공, 지리교육전공, 역사교육전공, 수학교육전공, 윤리교육전공, 철학교육전공, 미술교육전공, 한문교육전공, 체육교육전공, 영어교육전공, 물리교육전공, 화학교육전공, 생물교육전공, 가정교육전공, 전신교육전공, 종교교육전공
2. 응시자격
 - ①석사과정: 학사학위 소지자 및 졸업예정자
 - ②연구과정: 석사과정에 준함
3. 원서교부 및 접수: 1990.6.1(금)~6.8(금)
4. 전형일시 및 장소: 1990.6.16(토) 14:00 본 대학원
5. 전형방법
 - ①석사과정: 전공, 교직교양 및 면접
 - *단, 미술교육전공 응시자는 실기시험 포함
 - ②연구과정: 전형(필기부과) 및 면접
 - *단, 미술교육전공 응시자는 활동실적(팝아트등) 포함, 작품 20호이상 2점 제출
6. 특전
 - ①공·사립 교직원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함.
 - ②교육학과(교육행정, 교육경영전공)에 지망하는 초·중·고 교장·교감·장학직은 특별 전형함.

*기타 상세한 것은 본 대학원 교학부로 문의 바랍니다. 전화 267-8131~9 (교)2283, 직통 279-8052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즉각총선’ 구호차원으로 제기할때

광주항쟁 10주기 관련정세분석<2>

1. 들어가는 말

민자당 전당대회가 열린 5월 9일 오후 전국 곳곳에서는 ‘민자당 해체’ ‘노태우 퇴진’의 합성이 87년 6월 항쟁이후 최대 규모로 울려 퍼졌다. 노태우 정권이 스스로 ‘총체적 난국’이라고 말하고 있는 정치권력의 위기가 전국적 투쟁으로 표출된 것이다.

KBS 현대중공업 파업 투쟁의 공세에 이어진 대규모 가두투쟁은 청년학생뿐 아니라 모든 민족민주운동 세력에게 투쟁의 자신감을 안겨 주었다.

그러나 우리는 5·9투쟁의 승리에 너무 자만해서는 안될 것이다. 9일 이후 대중투쟁의 흐름을 보면 5·9투쟁의 치밀한 평가와 투쟁의 강점과 약점을 잘 타산하고 약점을 극복할 대안을 수립해야 한다.

2. 5월 9일 투쟁의 교훈과 과제를 올바르게 각인하자.

9일의 민자당 전당대회 원천봉쇄 투쟁은 3~4일 반민자당 투쟁과 KIS 현대중공업 파업투쟁으로 이어지는 민족운동의 자주적 진전의 힘을 ‘민자당 해체’ ‘노태우 퇴진’으로 모아 89년 중앙정국으로부터 본격화된 노태우 정권의 파쇼적 탄압의 에봉을 겪고 삼강이 노정된 타도 투쟁의 대중적 진지를 구축하는데 의의가 있다.

이러한 의의속에서 전국 17개 도시 10여 만명의 참여속에서 진행된 9일 투쟁은 몇가지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우선 학생운동이나 민족민주운동의 지도부조차도 예상하지 못했던 만큼의 많은 학생과 시민이 참가한 대규모 군중시위였다는 것으로 이는 전체적 폭동, 물가인상, 주가폭락 등으로 인한 민중의 경제생활의 고비용과 금융실명제, 토지공개념, 군조직원 불파등 개혁조치의 후퇴와 KIS 현대중공업 공권력 진압등의 폭력화·반동화로 인한 국민들의 공분 이 가두의 반민자당 전선으로 모아진 것이다.

다음으로 6월 항쟁이후 그 어떤 투쟁보다 완강하고 격렬한 시위였고 이는 그동안의 탄압속에서 형성된 투쟁의지가 굳건하고 자신감에 넘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특징과 함께 5·9투쟁에서 나타난 우리의 약점을 살펴보면 첫째, 노동자 농민들과 기층 민중의 참여 속에서 진민중의 연대투쟁이 되지 못하고 학생중심의 투쟁을 벗어나지 못했다.

둘째 싸움의 격렬 완강했던 것에 비해 구호는 해체 민자당 중심이었으며 퇴진 노태우 타도 노태우로 삼할화가 크게 이루어지지 않아 학우 대중과 전국민에 대한 정치적 지도 교양이 높지 않음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미국과 노태우 정권의 정국도에 대한 폭로와 민족운동의 주체적인 전망을 제시하여 대중의 결의 결단을 높여야 한다.

셋째 87년 6월 항쟁에서처럼 연파·연와시위등 시민들과 결합할 다양한 형태의 투쟁을 고민하지 못하고 폭력투쟁으로 일관되었다는 것이다.

5·9투쟁의 평가속에서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는 9일 투쟁에서 보여진 청년학생의 선봉적 투쟁역량을 공고히 하는 한편 국민대중을 행동전선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정치적 지도력을 고양시키는 문제와 이를 통해 진민중의 정치적 연대를 가속화하고 국민연합의 힘을 실제화하는 것이라 하겠다.

민족민주운동의 정치적 지도력은 당면정세 발전에 대한 구체적 전망과 전국민을 단결시킬 정치적 목표를 분명히 하는 가운데 고양될 수 있을 것이다.

3. 당면 정세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총선투쟁’ 민주대연합 실현의 단초

‘반민자’ - ‘반미’ 투쟁 결합 중요

분산된 대중 단결투쟁으로 이끌어야

당면 정세를 규정하는 두축은 민자당 출범으로 나타난 미국과 노태우 정권의 지배체제 안정화 구도와 KIS 현대중공업 그리고 5·9투쟁으로 나타난 민중운동의 반민자당 투쟁역량이라 하겠다.

반민주적 3당 합당으로 드러난 미국과 노태우 정권의 구도

미국은 대한반도 전략의 핵심은 친미군사파쇼체제를 구축하여 미국의 정치 군사적 이익을 철저히 관철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80년 이후 미국과 군부파쇼체제가 위기로 몰리자 미국은 친미파쇼연합 수립이라는 저장도 전략으로 지배전략을 수정한다.

1986년 초에 한국내에서 개헌운동이 일어나고 신민당 개헌연립을 계기로 미국의 의도가 명백히 드러났다. 미국은 먼저 군부파쇼의 정치체제에 분분화 색채를 가미시켜 정통성을 확보하고 민족민주운동세력의 성장을 봉쇄하기 위해 결국 한국에서의 미국의 신식민지 정세를 안정화하기 위해 개헌작업을 허용하고 내각제로의 합의개헌



◇현재 대중투쟁은 친미파쇼연합에 의해 가속되는 정치경제적 위기와 이로인한 분노를 민자당에 대한 구체적인 반대와 저항으로 전개되고 있다.

으로 나아가게 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협상결렬과 6월 민중항쟁으로 인해 이 작업은 무산되었다. 친미파쇼연합의 건설과제는 노정권에게 넘어갔다. 노정권은 집권초기부터 허약한 국민적 지지기반과 여소대우에 대한 민중의 불신으로 소외에 시달려왔다. 그러나 계파간의 대립과 경쟁을 통해 친미파쇼연합이라는 전제적인 정치적 기반을 유지해내고자 하는 것이 미국의 새로운 지배메카니즘인 이상 민족민주운동의 대중과 국민을 야망의 저항에 의해 조정될 정치적 상황에 지배권을 재확인하지 않는다면 친미파쇼연합의 전략 구도는 변화하지 않을 것이다.

한편 항우의 정치일정을 살펴보면 현행헌법에 따른 경우 92년 4월 까지 국회의원출신을 치러야하고 92년 2월에 임기가 끝나는 대통령 선거는 92년 12월까지 치뤄야하기 때문에 개헌을 할 경우 적어도 내년인 91년 정기국회시가지는 개헌작업을 마무리 지어야 하며 민자당내의 권력투쟁이 개헌시기가 앞당겨진다면 적어도 올해부터 개헌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이며 지지계는 개헌이후로 미루

미국은 친미파쇼체제 안정화 전략은 민자당의 내부시정(박철언-김영삼의 대립)으로 표출되는 민주계와 민정계의 대립(싸움)으로 부분적 수정(변형된 의원내각제나 이원적정부제로의 개헌)을 하는 등 결코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계파간의 대립과 경쟁을 통해 친미파쇼연합이라는 전제적인 정치적 기반을 유지해내고자 하는 것이 미국의 새로운 지배메카니즘인 이상 민족민주운동의 대중과 국민을 야망의 저항에 의해 조정될 정치적 상황에 지배권을 재확인하지 않는다면 친미파쇼연합의 전략 구도는 변화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과 노태우정권은 개헌을 통한 안정적 장기집권을 획책하기 위하여 민족민주운동의 핵심에 대한 탄압-검거(김근태서 구속등) 대공파의 분리책과 대중조직에 대한 침탈등으로 전무적 대중운동을 중심으로한 민족민주운동세력을 고립, 무력화시키고 야권의 분열구도를 고착화시키려 할 것이다. 또한 무기근절 공무원 비리조사, 사정판 설치등 조직적 되지 않은 중·하층대중을 목표로 한 허구적 경제안정화조치를 통해 이들을 민족민주세력의 영향권에서 중요 이탈하게 만들려 함이며 한편으로 북방외교와 남북정상회담개최등을 통해 정치적 성과를 과시하여 민자당에 대한 대중의 불만을 잠재우려 기도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누적되고 있는 예측경제의 자본축적 위기와 방위비증액 관용조정으로 인한 수출부진, 중시부양액, 특별금융융통의 통화 남발로 인한 인플레이션등으로 인해 경제안정조치의 허구성은 폭로될 것이며 오직 폭력과 이베올로지 탄압으로 일관하게 될 것이다.

4. 민족 민주운동의 현상태와 5월 투쟁의 과제

KBS와 현대중공업의 파업투쟁에서 보여지듯이 민자당의 출범을 전후한 미국과 노태우정권의 국민대중에 대한 정치적 억압과 경제적 수탈은 이미 그 도를 지나쳐 광범한 국민적 분노로 표출되고 있고 구체적 계기를 통해 집중적으로 표출되고 있다. 이러한 국민대중의 분노는 정치적 경제위기의 심화과정에서 표출되는 구조적인 것으로 시기와 조건이 조성되면 인연가. 전민항쟁으로 폭발될 내연화될 것이라 할 수 있다.

노태우 정권 퇴진 즉각 총선' 가지는 당면정세의 의의는 첫째, 대중운동의 진출과 투쟁의 발전정도에 부합하는 정치적 전선대안을 배치함으로써 대립적 대립을 분명히 하고 대중 투쟁의 역동성을 고무시켜 투쟁의 상승발전을 보장하는데 있다.

노태우 정권 퇴진 즉각 총선'은 노태우와 민자당에 대한 전면투쟁의 구체화된 대중적인 정치행동화 정치적 대안이다. 이것은 현실의 대중운동에 대한 탄압등을 더욱 대중적으로 규탄하면서 노태우 퇴진투쟁의 속도를 형성해 들어가야 한다. 특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간적인 경제안정조치의 허구성을 집중적으로 폭로하여 자칫 동요할 수 있는 중·하층 대중을 굳건히 결집하여야 한다.

이것은 당면투쟁의 전개를 현안에 뒤따라 다니는 투쟁을 전개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현안에 대한 집중된 정치투쟁으로 대적투쟁을 강화하여 정세를 추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것이 현정권 퇴진투쟁을 즉각적인 대중투쟁으로 수행할 수 있거나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현대중운동의 발전수준은 정권에 대한 반대를 광범위하게 확산시키고 있는 타도의 의지로 구체화되고 있지 못하다. 여기서 매시기 전개되는 정치현안에 대한 투쟁의 집중점을 노정권에 맞추고 정권퇴진 투쟁을 제기하는 것은 대중투쟁의 발전방향과 그 구체적 조건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5월 반민자당투쟁에서 결합하고 저항해야 할 투쟁의 방향은 반미투쟁을 결합, 전개하는 것이다. 앞서 다소 광범하게 살펴본듯이 민자당의 성격이 친미파쇼연합임을 반미투쟁을 강화하는 것은 민자당의 산파자인 미제의 개입을 끊어냄으로써 민자당을 약화시키고 반민자당 투쟁의 상승발전을 확고히 하는 것이며 내용으로는 내정간섭 중지 그레그 추방, 광주개입에 대한 공식사과와 책임자 처벌등이 되어야 할 것이다.

5. 노태우 퇴진 '즉각 총선' 쟁투쟁으로 분산된 대중투쟁을 정치투쟁으로 집중시키고 대중행동전을 조직화하자

현재 대중투쟁은 친미파쇼연합에 의해 가속되는 정치경제적 위기와 이로 인한 분노를 민자당에 대한 구체적인 반대와 저항으로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각계 대중운동의 다변화된 진출은 집중된 정치투쟁의 제출을 통한 대중행동전으로의 상승발전을 요구하고 있다.

현정권 요구되어지는 정치적 전선대안은 노태우와 민자당에 대한 국민적 심판의 대중적의의와 노태우-민자당의 장기집권구도에 파란을 일으킬 수 있는 정치전선이어야 한다. 이러한 전선대안은 국민투표, 중간평가, 국회해산, 총선실시 등의 다양한 것이 제출되어질 수 있는데 현재의 정세속에서 제출되어지는 총선실시투쟁은 여소아대를 창출한 국민적 합의를 야함으로써 짓뭇고 파쇼적 전횡을 일삼고 있는 민자당에 대한 국민적 심판과 90년 말 91년 상반기로 구체화되고 있는 내각제 개헌을 통한 장기집권구도를 파탄시킬 수 있는 정치공세의 의미에서 제기되어지는 것이다.

노태우 정권 퇴진 즉각 총선'이 가지는 당면정세의 의의는 첫째, 대중운동의 진출과 투쟁의 발전정도에 부합하는 정치적 전선대안을 배치함으로써 대립적 대립을 분명히 하고 대중 투쟁의 역동성을 고무시켜 투쟁의 상승발전을 보장하는데 있다.

노태우 정권 퇴진 즉각 총선'은 노태우와 민자당에 대한 전면투쟁의 구체화된 대중적인 정치행동화 정치적 대안이다. 이것은 현실의 대중운동에 대한 탄압등을 더욱 대중적으로 규탄하면서 노태우 퇴진투쟁의 속도를 형성해 들어가야 한다. 특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간적인 경제안정조치의 허구성을 집중적으로 폭로하여 자칫 동요할 수 있는 중·하층 대중을 굳건히 결집하여야 한다.

이것은 당면투쟁의 전개를 현안에 뒤따라 다니는 투쟁을 전개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현안에 대한 집중된 정치투쟁으로 대적투쟁을 강화하여 정세를 추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것이 현정권 퇴진투쟁을 즉각적인 대중투쟁으로 수행할 수 있거나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현대중운동의 발전수준은 정권에 대한 반대를 광범위하게 확산시키고 있는 타도의 의지로 구체화되고 있지 못하다. 여기서 매시기 전개되는 정치현안에 대한 투쟁의 집중점을 노정권에 맞추고 정권퇴진 투쟁을 제기하는 것은 대중투쟁의 발전방향과 그 구체적 조건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5월 반민자당투쟁에서 결합하고 저항해야 할 투쟁의 방향은 반미투쟁을 결합, 전개하는 것이다. 앞서 다소 광범하게 살펴본듯이 민자당의 성격이 친미파쇼연합임을 반미투쟁을 강화하는 것은 민자당의 산파자인 미제의 개입을 끊어냄으로써 민자당을 약화시키고 반민자당 투쟁의 상승발전을 확고히 하는 것이며 내용으로는 내정간섭 중지 그레그 추방, 광주개입에 대한 공식사과와 책임자 처벌등이 되어야 할 것이다.

6. 맺음말

이상에 5월 9일 투쟁의 평가와 현시기 요구되는 투쟁전면에 대해 개략해 보았으나 정정이 필요한 함의에 반미투쟁을 강화하는 것은 지면상 다루지 못했다.

“운동에 있어서 도덕성은 정치적 영향력의 핵심입니다. 그 하나를 탄압에 맞서 싸우는 바로 그 의지를 활동가들이 다시 되찾아야 합니다. 또 하나는 대중속에서 통일단결의 모습을 획득해내는 일입니다” 우리의 전선이 실제 어떻게 대중투쟁에서 힘으로 전환될 것인가를 고민하며 실천적인 비판을 할 수 있겠나 한다.

김태균
(경성대 무역학과)

1990학년도 후기(야간) 정보산업대학원 학생모집

본교 정보산업대학원은 컴퓨터, 통신, 인본의 융합과 확산이 창출해가고 있는 정보사회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재교육하기 위해 설립된 야간 특수대학원입니다.

- 모집과정 및 전공:** 석사과정, 연구과정, 관리자과정
 - ①정보통신학과: 전자계산전공, 정보관리전공
 - ②신문방송학과: 신문방송전공, 출판까지전공
 - ③산업개발학과: 정보통신전공, 산업개발전공
- 응시자격**
 - ①석사과정: 4년제대학 졸업자 및 90년도 8월 졸업예정자
 - ②연구과정: 석사과정과 동일
 - ③관리자과정: 언론계, 기업체, 국가기관, 사회단체 중견관리자
- 원서교부 및 접수:** 1990.6.11(월)~6.20(수)
- 전형일시 및 장소:** 1990.6.23(토) 14:00분 대학원
- 전형방법**
 - ①석사과정: 필기시험(영어), 서류전형, 면접
 - ②연구 및 관리자과정: 서류전형, 면접
- 특전**
 - ①현직인원에 대하여 특별우대 장학금 지급함.
 - ②공무원, 군인, 국가산업체 중견간부요원에 대하여 각종 장학금 지급함.
 - ③제시시 출장장학, 우등장학 등 각종 장학특전 있음.
 - ④화과지원은 출신대학 전공학과와 관계없음. (본대학원 졸업생은 박사학위 과정에 진학할 수 있음)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본 대학원 교학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267-8131~9 (교)3292, 직통 277-6511

동국대학교 정보산업대학원

1990학년도 후기(야간) 지역개발대학원 학생모집

(경주캠퍼스)

- 모집과정 및 전공:**
 - ①모집과정: 석사과정, 연구과정, 관리자과정
 - ②모집학과: 개발행정학과-개발행정, 지방자치, 지역경제개발
- 응시자격**
 - ①석사과정: 4년제대학 졸업자 및 90년도 8월 졸업예정자
 - ②연구과정: 석사과정과 동일
 - ③관리자과정: ①정부 각 기관의 5급이상 공무원
 - ②가 군의 영관급 장교
 - ③정부투자기관 또는 사기업체의 간부
 - ④공공기관(단체)의 간부
- 원서교부 및 접수:** 1990년 6월14(목)~6월21(목) 17:00까지
- 전형일시 및 장소:** 1990년 6월23일(토) 오후2시 본대학원(진주캠퍼스)
- 전형방법:** ①석사과정: 논문, 서류전형 및 면접
②연구과정, 관리자과정: 서류전형 및 면접
- 특 전:** ①기업체, 정부부서 실무경력자는 전형에서 우대함
②공무원 전연에 졸업시까지 장학금(수업료30%)을 지급함
③우등장학금, 출장장학금 등 각종 장학특전이 있음

*기타 상세한 것은 본 대학원 교학부에 문의바랍니다.
경북 경주시 석성동 707번지
전화: (0561)2-0131~6(교)263, 직통(0561)41-4131

동국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학군사관 후보생모집 (R.O.T.C.)

- 모집인원:** 00000명
- 지원자격:**
 - ①90년도 4년제대학 2학년 재학생
 - ②'69. 1. 1~'73. 3. 1출생자(18세~22세 미만)
 - ③장교 임관 결격사유 없는 자
- 지원서 교부 및 접수:**
기간: '90. 5. 1~6. 10(학군단본부)
- 구비서류:**

지원서류	신체검사
●지원서 및 서약서 1부	●호적 및 주민등록등본 ... 각 1부
●대학입학 및 1학년 성적증명서 1부	●사진(4×5cm) 2매
●사진(4×5cm) 1매	
- 선발:** 대학성적, 신체검사, 체력검정, 면접
- 합격자 발표:** '90년 12월 22일
- 특전:**
 - ①무시험 선발
 - ②소위인관, 중위전역 또는 복무연장, 장기복무
 - ③의무 복무 기간: 2년3개월(장교중 최단기)
 - ④회망 및 전공학과 고려 병과분류 보직활용
 - ⑤전역시 직업보도실시
 - ⑥대기업체 학군출신자 우대선발 및 처우

*문의처: 각 대학 학군단 본부

생활속에서 우리나라의 놀이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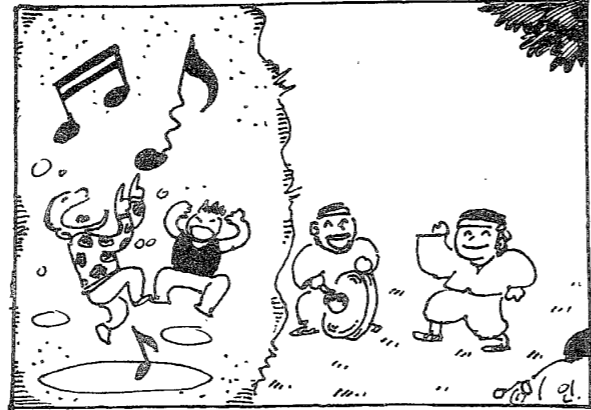
올바른 '놀이마당' 정착을 위해

본면에서는 4회에 걸쳐 입거리, 먹거리, 놀이문화의 민족생활문화운동에 대하여 연재해 보았다. 내용면에 있어 독자들에 좀더 충실하고 일관성을 전하지 못해 아쉬움이 남는다. 여러번 언급했듯이 생활문화운동이란 나의 삶 주변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모조리 많은 학생들이 우리것을 찾으려는 노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길 바란다. (편집자)

요즘의 대학 주변을 살펴보면 가장 눈에 많이 띄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오락실'이다. 도저히 말도 안되는 정도로 파퓰러 되어간 오락실의 모습을 보면서 한때는 '노름'에 미치면 집값도 땅팔아 먹는다 하는 옛말이 빈말은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오락실은 모든 청소년들에게 아주 친숙한 놀이문화가 되어 버렸다. 하루에 한두번 정도 가지 않으면 왠지 좀 섭섭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또한 오락실에 비유하게 많이 찾는 곳이 바로 디스코장이다. 아가네가 있다. 처음에는 재미와 호기심으로, 나중에는 습관처럼 '스트레스를 풀려면 디스코장으로...'라는 식이 되어버리기 일쑤이다. '환영회' 및 입학한 신입생으로 '환영회'를 하고 나서는 자연스럽게 선배들을 따라 디스코장에 갔던 기억이 있다. 아마도 대다수 신입생들의 경험이 비슷했을 것이다. 또한 대학생들에서 배낭을



팝송 한귀절로 '나'를 잃지 말아야 대학 풍물패 우리문화 찾으려 노력

어찌 되었건 언젠간 오락이나 디스코, 술자리... 이런 것들은 대학문화의 '놀이문화'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이러한 대학의 놀이문화를 비롯해 현재 우리생활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놀이문화에 대해 생각해 보자. 앞서 말한 오락과 디스코를 놀이로 삼는 요즘의 풍토가 잘못되었다고 말하기에는 오히려 애석할 지경이 이르렀다.

지금 우리에게 더욱 중요한 것은 잘못된 문화의 비판보다 올바른 우리의 놀이문화를 되찾고 즐기는 것이다. 놀이문화를 되찾는 것은 바로 우리의 정신을 되찾는 길이라 생각된다. 우리의 놀이문화는 집단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그 한 예로 '민요'에서 본다면 그 생겨난 배경이 바로 농동을 하면서 흥이 나서 불렀던 것들이 대부분임을 볼 수 있다. 배를 지으면서, 모를 한

것 없는 우리 놀이문화는 바로 우리생활에서 생겨나는 일 그 자체와 연결된 것이다. 차를 이러한 우리의 놀이문화의 색깔을 찾으려는 노력을 많이 볼 수 있는데 대학에서 풍물패들이 생겨나 집회 때나 학교축제 때에는 한몫을 크게 담당해내고 있다.

본교만하더라도 작년 축제 기간중 불상앞에서는 남사당패들의 공연을 볼 수 있었다. 이것은 축제기간중 어떤 행사보다도 많은 이들의 발길을 붙잡아 놓았는데, 광대들과 구경하는 이들이 한바탕 되어 신명나는 장면들이 많았다. 줄을 타는 장면에서 아슬아슬하던 얼굴, 신기할 정도로 상모를 둘러싸는 광대에게 열렬히 박수를 보내는 이들, 사람이 너무 많거나 무위까지 올라가 구경을 하는 사람들....

예전엔 TV를 통해서나 보던 장면들이 바로 눈앞에 펼쳐진 순간 나도모르게 어깨춤이 절로 나오며 뭔가 우리만의 것을 느끼기에 흥분했다고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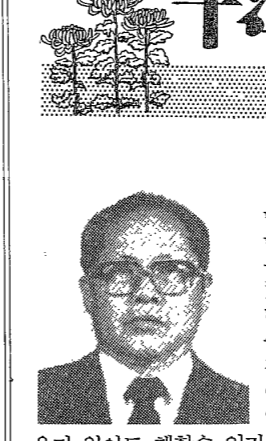
이제 우리것찾기운동은 바로 우리생활주변에서부터 우리 스스로 시작해야 한다. 우리 놀이문화를 찾는 것은 바로 '우리'를 '나'를 찾는 일이다.

무심코 불려대는 팝송 한귀절이, 시간가는 줄 모르고 열심히 놀러대는 오락난후에 혹시 '나'를 '우리'를 온전중대라고 믿고있지나 않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양명은 사상가일 뿐만 아니라 위대한 정치가로 군인이었다. 그의 유명한 말본색인(本本)에서는 '미치광이'를 환영이 칭송하고 또한 그리워하고 있다. 거대한 주자의 이상을 받은 색인하기 위하여는 구도적 정열을 가진 '광인'으로 학파를 만들어 실천적으로 강령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광자'에 찬양은 일찍이 광자가 한바탕 다. 그는 성현을 제외한 인간을 세 단계로 구분하고 있는데 광(狂)인(狎)향원(鄒)이 그것으로 광은 불의와 타협이 없이 진취성이 있는 사람, 건은 합리와 하지 않아 할 일을 구분하면서 처신할 줄 아는

달하나 수강이 광자(狂者) 송(頌)



曹永祿 (문과대학교수·동양사)

우지 양도 행할수 있기 때문에 어떤 표현하더라도

사람은 누구나 좋은 것을 보고 욕하고 하고, 그 큰 일을 보고 틀렸다고 하는 시비 목적을 가릴 줄 아는 능력이 갖고 태어났다. 이는 - 생각하지 않고도 알고, 배

사람, 향원은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팔방미인이다. 광-경은 사회적으로 유익하고, 광자에 유망한 인물이라하여 높이 평가하면서도 향원에 대해서는 덕(德)의 적이라 하여 매도하였다.

양명의 인간관도 광자의 그것을 따랐을 뿐이다. 양명은 광자적 배가와 전취성이 없으면 자기 문화로 맞이 들이기조차 꺼려하였다. 그리하여 그의 문화에는 용계(龍溪) 심재(心齋)와 같은 특이한 사상가가 나와 양명학 좌파를 열었고, 그제 전 삼진 제자에 허심은(何心隱) 이탁오(李卓吾)와 같은 반유교적 내지는 반제교학적 극단 론자가 나와 명말 청초의 시대적 특징을 수놓았다. 다시 그 영향은 중국의 붓과 불리우는 경제학자 황중호(黃宗憲)를 낳았고 문학과 예술 방면에도 위대한 기풍을 조성해 주었다. 여기서 양명은 근대적 명가로서의 명말 청초를 여는데 일정한 선구적 역할을 수행한 것이었다.

역사의 진광자에는 앞시대를 청산하고 다음시대의 창출을 위한 전환기가 있기 마련이다. 오늘의 인류 역사가 시대적 전환기에 접어들었다. 동구의 변화,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 중국의 천안문 사건으로 대표되는 세계적 사회주의 국가의 개방 개혁운동이 역시 그렇다. 들려오는 바에 의하면 미국 학계에는 정치경제학이 붕괴된다고 하니 이 역시 세계적 전환기의 한 현상이 아닐까 분명하다.

이러한 역사의 전환기를 혼란기로 착각해서는 안되며 이태미인수적 광자적 지성은 더더욱 필요로 한다. 관(官)과 학(學)이 유착되어 학술 사상에 정제되고 있을 때 양명이 학술을 제정하여 새로운 학파를 개척하였듯이 지금 우리나라 학교가 전환기를 맞은 이때 선진 기예의 '광자'가 쏟아져나와 세시대 새사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후원을 베풀어 줄 것이다.

양명은 사상가일 뿐만 아니라 위대한 정치가로 군인이었다. 그의 유명한 말본색인(本本)에서는 '미치광이'를 환영이 칭송하고 또한 그리워하고 있다. 거대한 주자의 이상을 받은 색인하기 위하여는 구도적 정열을 가진 '광인'으로 학파를 만들어 실천적으로 강령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광자'에 찬양은 일찍이 광자가 한바탕 다. 그는 성현을 제외한 인간을 세 단계로 구분하고 있는데 광(狂)인(狎)향원(鄒)이 그것으로 광은 불의와 타협이 없이 진취성이 있는 사람, 건은 합리와 하지 않아 할 일을 구분하면서 처신할 줄 아는

지금까지 일반학우가 배워왔던 교과과정상의 그림들은 심각하게 토론되고 비판되어야 할 여지가 많다. 왜냐하면 그림은 다른 예술과 마찬가지로 시대의 소산이고, 절절하고, 고고하며, 표출이기 때문이다.

그림을 독자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오류를 범할 수 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우리의 미술사에 등장하는 그림은 이상형이거나 꾸미기 위하여 이리저리 현실에 대한 무관심을 당면시켜지고 미술이 전문지식을 갖춘 특정인만이 공감을 얻을 수 있고, 더욱이, 특정한 작가(화가)에 의해서만 창조된다는 위엄 있고 안이한 선입견이 기본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 필자는 안타까워 한다.

이러한 선입견이 필자는 동양학우 여러분들이 미술작품에 대한 견해(판정)가 아닌 언어의 표현현상을 초월하여 막강한 힘을 소지하는 전방의 병영으로서의 미술이라는 점을 대안으로 지적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그로츠 게오르그(George Grosz 1893-1959)는 독일 출신의 미국 화가이다. 제1차대전 발기에 다다(dadaism) 전풍의 가치, 이성의 우위, 예술의 형식을 부정하는 파괴적 허무주의의 성격이 짙었으나, 이운동은 기능적인 것의 부정, 권위적인 것에서의 파괴에서 우연성의 개입, 자동적인 발생, 자유로운 표현 양식 - collage,

살아있는 그림을 그린 사람들

<5> 통렬한 풍자화가 그로츠 게오르그

은 결국 풍자로 귀결된다. 그러던 그로츠가 왜 이러한 작품 경향을 지니게 되었는가를 살펴보자.

1893년에 태어난 그로츠가 제1차세계대전이라는 파괴적 상황을 체험했다는 것은 그의 묘신인 한 시기를 국한하는 에리학과 풍자로 지속되고 있는 점을 이해할 수 있게한다. 그로츠가 회고록에서 "1917년 그가 전쟁터에서 고향 베를린으로 돌아왔을 때 그곳은 무서운 들 무덤 같았다. 집집마다 예외없이 굶주림이 나 있었다"라고 쓰고 있으며 그의 이러한 선포는 이 '균열'이었다. 그때의 사회로부터서 생기는 무수한 균



정신처럼 넘어지지 않게



가난한 자들의 전쟁희들은 비참할 뿐

전쟁의 혼란 예리한 선으로 폭로 대도시의 추악한 이면 풍자로 묘사

열이, 災災만인 아닌 人爲의 결과이기도 하기 때문에 배우려 해도 배우지 못하는 실연은 사 람들에게 느끼게하고, 무력감을 느끼게 하였었다. 전후의 사람들이 신세타령이나 하 게되고, 사는 것에 절망과 권태를 느끼는 것은 이런 밑바탕 나락으로 통하는 균열과 직면

백만 민주 학우 여러분께 드리는 글

3년전 이한열 열사가 폭력 정권이 쓴 적격탄에 맞아 목숨을 빼앗기는 등 민주화를 위해 투쟁하는 학우들의 희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9일, 반민중 야합 페거리민자당이 전경 50개 중대 1만여명의 삼엄한 호위를 받으며 전당대회를 요란하게 치루고 있을때 밖에서는 민주 시민들의 지랄판이 춤을 추고 민중의 가슴위로 군화발이 송곳처럼 내리 꽂히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날 오후 6시 10분경, 세로나백화점 앞에서 우리들의 벗 김진태 학우(동국대 사학과 3년)가 폭력 경찰이 쓴 적격 최루탄(SY-44)에 맞아 양쪽 눈에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왼쪽 눈은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이 안구가 부셔서 버렸고 오른쪽 눈도 이러한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동국대 사학과에서는 즉시 '김진태 학우 실명 전상규명 및 노태우 정권 타도 투쟁을 위한 비상 대책 위원회'를 설치하고 전상 규명을 위한 자료수집, 폭력 만행을 폭로하는 대내외 홍보, 병원비와 범정부(배상청구)소송비 마련을 위한 모금활동 등을 꾸준히 전개하여 '비상대책위원회'는 이제 사학과 차원에서 벗어나 범 동국대학 위원회로 확산 강화 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진태학우 개인의 문제 해결을 넘어서 다시는 이 땅에서 이러한 비극이 없도록 폭력 정권 타도를 위한 투쟁 의지의 범 국민적 확산에 백만 학우여러분의 적극적인 도움을 호소드립니다.

백만 민주 학우 여러분! 우리는 이날 현장을 목격하신 분이나 증거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태학우가 안심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비와 손해배상청구투쟁을 위한 모금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학우 여러분의 따뜻한 격려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연락처)주간전화:267-8131(9)(교학, 문과대 학생회실)
야간전화:267-8142(직통, 총학생회실)
(온라인)국민은행 048-21-0365-541 양정철
—광주항쟁 10년 5월 14일 김진태 학우 실명 전상 규명 및 노태우 정권타도 투쟁을 위한 비상대책 위원회—

동대역시장

■지리교육과 쭈구리를 모여라!

지리교육과 쭈구리(예비역)들이 오는 19일 강촌유원지로 M·T를 떠납니다. 해당하는 사람은 한명도 빠짐없이 19일 오전9시30분까지 청량리 시계탑앞으로 집합합! 손에손에 술병들고 우리의 젊음을 만끽하려 자-떠나자 -지교과 한 쭈구리가 일립-

■취미교과 등문회

언제:5월17일 오후5시
이디서:불상앞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필히 참석을 바랍니다.

■생일을 축하합니다

어제(15일) 모놀의 의로운 기러기 연주가 21번째의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동약의 학우 여러분들의 뜨거운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연주야! 내걸엔 우리가 있단다! 생일축하해 -예술대 미술학과 모놀(소, 문, 속, 은, 현)-

■일일치점이 열립니다

무역학과 학생회는 지난 4월 실행 1년을 선고받은 이 세움(무역 87)학우 협소기금 마련을 위한 일일치점을 준비합니다. 언제:오늘(5월16일) 오전9시~오후8시 이디서:다향관 2층 -무역학과 학생회-

■정치경제학 특강

언제:1차-5월16일 오후2시~4시 2차-5월23일(시간은 추후공고) 이디서:동국관(L401) 강사:정문영박사(한겨레신문 논설위원) -경제학과 학생회-

■감사드립니다

해마다 돌아오는 스승의날을 즈음하여 그동안 많은 염려속에 돌봐주시던 국어교육과 김장호, 최세화, 김동진, 한용현, 최은열교수님들께 고마움을 글로써 대신하고자 합니다. 내내 건강하신 모습으로 교단에서 활기차게 바라는 마음은 신문에 담습니다. -국어교육과 박영란, 최유옥 올림-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가까이 있으면서도 고마움을 표시하지 못했던 정치외교학과 신국주, 정용길, 김진철, 백경남, 유광진, 홍순욱교수님들께 스승의날을 맞이해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제자 서창훈 올림-

■감사드립니다

스승의날을 맞이하여 지리교육과 오홍석교수님, 김주환교수님, 형기주교수님, 이혜은교수님께 그동안의 지도편달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건강하세요. -신문사의 제자-

■여수항우회에 알립니다

지난 12월·13일 양일간 있었던 여수항우회(회장 서신평) M·T가 성황리에 치뤄졌음을 전향우회에게 알립니다. 아울러 불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신 여동회 선배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크고 작은 행사시에도 많은 참여있기를 이자리를 빌어 전 향우회에게 호소합니다. -여수항우회 회원 일동-

■별조심을 합시다

지난9일 분교 학생회관 2층에서는 화재가 발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학생회관에서는 화재가 나는일을 종종 볼 수 있는데 동아리인 뿐 아닌 우리모두가 불조심을 해서 동아리에 피해가 없도록 주의합시다. -동아리 한 학우가-

■자료전시

경주캠퍼스 도서관 1층에서는 5월16일부터 19일까지 진학, 기업체, 공사, 언론, 금융, 각종공고에 대한 자료와 대기업체 및 국가고시에 대한 자료를 전시한다. **■등국교 등문회**

경주캠퍼스 등국교 등문회가 열리니 동문여러분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언제:5월24일 오후5시 이디서:원효관 휴게실 회비:5천원

동대역장은 여러분의 공간입니다

동대역장은 전통적인 모토에 열려있는 공간입니다. 주위의 일들에 대해 알고 싶은 사항이 있다면 주저 말고 동대신문사 동대역장의 문을 두드리십시오. 동대역장에 실리는 광고는 광고료가 없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전사

조선의 맥박
(전문연(건) 창작단)

“한 사람의 눈물이 모여 전대혁의 분노가 되고
생활속의 승리가 모여 민족의 해방을 이룬다”

무등을 본다

금남로를 불태웠던 노을을 가슴에 안고

다시 서는 오월의 거리

오늘 나의 몸속에서도

조국의 피는 전해지고 있는가

맹세의 감발을 치고

조국의 품으로 가는 산맥 그 능선마다

전사의 길을 밝히던 한별

조국의 운명과 함께 서 있던

그 불패의 눈동자가 보인다

도장을 향하여 시수의 발걸음 결심하던

한 소년 전사의 눈동자가 보인다

내 가슴에서 뱉어지는 조국의 피

오늘 그 눈동자 다시 보인다

무등에서 부는 바람은 피에 젖어 있는가

향정의 바람은 오늘 이땅에 살아보이는가

나는 무등을 본다

금남로에 서기 위하여

오월의 역사를 살기 위하여

조국의 사랑이 나에게로 전해져 올 때까지

나는 얼마나 많은 싸움을 거쳐와야 했는가

나는 얼마나 많은 동지들의 사랑 받아왔는가

무등의 그림자 밝고 선 이 자리

역사가 새겨진 조국의 강 흐르는 이 자리

전사를 기운 조국의 산들이 솟아있는 이 자리

그 강 그 산들마다 비추는 별을 바라보며

오늘의 청년대오는 서 있다 나는 서 있다

오월의 전선으로 돌아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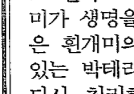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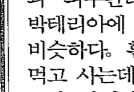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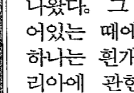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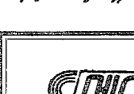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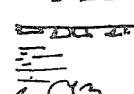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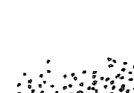
이 자리에 서기까지 떨친 눈물들 모여

분노가 된다 조국의 자랑이 된다

해방이 보이는 전선에

전선에 나는 서 있다

이시는 오는 19일 전남대에서 있을 전대혁
제4기 발족식에 낭송될 시 '전사'의 서시입니다.



광주는 바로 우리가 살아내야 할 삶

— 원종문 장편소설 '잃어버린 초상'

광주민중항쟁 10년 / 그동안 술한 기념사업, 보고서, 자료집이 나와 '깃발' '밤길' '십오방 이야기' 같은 중단편 소설도 적잖게 나온 바 있다. 거기 장편인 중영화 '오 / 꿈의 나라'까지 나왔지만 '광주'는 바로 우리가 살아내야 할 우리 자신의 '삶'이라는 감동

상인칭 인물의 입으로 이야기해 온 소설들과 달리 나(제성)라는 일인칭 주인공의 입을 통해 발 빠르게



을 총체적 지평 속에서 터뜨려 줄 수 있는 장편소설이 없어 서운하던 터에 '원종문'의 '잃어버린 초상'이 나와 반가운 마음으로 이를 소개한다.

무엇보다도, 3백쪽이 채 안되는 분량이지만 단숨에 읽힐만큼 이야기가 진솔하고 문장의 힘이 짙다. 이처럼 쉽게 읽히는 것과 진솔하게 읽히는 것이 동의어일 수 있음은 '잃어버린 초상'의 결코 작지 않은 미덕이라 하겠다. '잃어버린 초상'은 이제까지 '광주'라는 무거운 주제를 객관적인

코앞에 에우는 한국인이 서 있다. 에우는 지금 건드리기만해도 쓰러질만큼 기진맥진해있다. 눈앞이 뒤집어질 듯 호느껴져서 서 있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와 보인다.

33대32 미국팀이 한국팀에게 1점 뒤져있지만, 이제 곧 승리를 따낼 수 있는 상황.

토미는 서서히 뒤돌려차기 자세를 잡는다. 그의 살인적 위력을 아는 팀 동료들이 "NO, 안돼"를 외치기 법칙하는 토미의 뇌리엔 에우는 에 의해 죽어간 형의 모습이 떠오른다. 경기시간 마지막 9초, 뒤돌려차기를 포기하고 눈을 찔린 감아 버린 토미의 귀에 게임종료 벨이 울리고, 33대32로 미국팀의 정신폭이 전란한 승리를 했다. 만세, 만만세, U.S.A.

미국의 지배이데올로기는 결코 다양한 방법으로 침투되지만 무술 영화에까지 한국인을 등장시키며 그들의 우월성을 선전해내는 것은 영화 '더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가 아마도 처음일 것이다.

기존소설과 달리 일인칭주인공 입을 통해 서술

진솔한 이야기 - 문장결의 깔끔함이 양대미덕

풀어나간다. 그러나 이 소설의 미덕은 단지 이야기가 깔끔하다는 데에만 있지 않다. '잃어버린 초상'의 소설로서의 생명은 '광주의 초상'이 단지 '나(제성)만의 초상'으로 끝나지 않고 독자 개개인으

로 끝나지 않고 독자 개개인으로 끝나지 않고 독자 개개인으로 끝나지 않고 독자 개개인으

로 끝나지 않고 독자 개개인으로 끝나지 않고 독자 개개인으로 끝나지 않고 독자 개개인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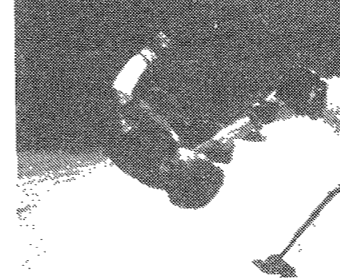
분노로 일룩졌던 일백분

재미한국인 3세가 제작한 '더베스트 오브 더베스트'

제미한국인3세라는 필름리가 직접 제작·주연을 맡아 한국인의 긍지를 높이 세워주었다는 영화 '더베스트 오브 더베스트'.

한미 친선 태권도장기를 소재로 한 이 영화는 처음부터 끝까지 초지일관 미국인의 우월과 사랑, 드넓은 포용심을 열심히 선전해내고 있다. 이는 한국과 미국 양팀의 훈련과 정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스포츠영화에서나 볼 수 있을지 한 이느린에서 눈에 '살기'를 띠고 매우 질서정연하게 훈련을 하고 있는 한국선수들, 이들은 훈련코

만 한다"는 미국코치의 귀뜸에 등 돌릴거리 서로 격려를 하며 연습에 몰두한다. "한국놈들을 이기려면



수들의 모습을 비디오로 비추며 이 선수는 몇명을 죽였고 저선수는 또 몇명을 죽였다는 정확한 통계로

◇박대현과 주인공 토미리의 대결장면. 초지일관 미국인의 우월과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 한국선수들을 비굴한 살인자로 표현하고 있다.

한미태권도경기 소재로 미국우월성 심어

무술영화 매개로 지배이데올로기 살포

치의 '공통으로 기쁨을 받으며 열심히 연습을 한다. 이어 계속 보여지는 미국팀의 훈련 모습. "한국팀은 1년 12달 연습

정신폭에 없다"는 아리마운 여자 트레이너의 속삭임을 들으며,



브리핑을 해주는 미국인 코치. 그리고 눈으로 산속에서 빨간 바지에 웃음을 짓고 떠나는 신랄한 체격

과연 연습을 하는 한국선수들, 비유적

공생과 기생

의치면서 대기업과 노동자는 공존해야 한다는 주장이 하고 있다. 동학에서 진행되고 있는 여러 상황이나 제단과 학교의 관계, 학교측과 학생들의 관계 또한 공존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은 제단이 학교에 기생하고, 대자본가가 노동자에 기생하는 오도된 공존으로 바뀌고 있다. 노예들이 지나치면 제기해야 하듯이 학교안에서 일어나는 '도를 넘는 행위'도 제기되어야 한다. 웃고 함께 할 수 있는 제단이고 학교라면 더욱 좋겠지 만 착취하고 탄압하는 집단이라면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의 노조파업은 지나친 노예화를 제기하기 위한 일련의 몸부림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가 아니라 책상이나 목재가구 등 습기가 전혀 없는 것만을 먹고 산다고 한다. 그럼에도 흰개미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흰개미의 배설물에서 기생하고 있는 박테리아가 나무를 분해해 다시 처리해 주기 때문이란다.

우리가 더럽다고 생각하는 때도 단순히 노폐물이 아니라 피부 보호막으로 작용하는 것이고 박테리아 또한 기생충으로서가 아니라 흰개미의 생명을 유지케 하는 공생체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보통의 사고로 들어가 보자. 노폐물이 너무 많아지면 사람은 청결하지 못하고 건강을 해

침란을 균을 번식시키고 팔것이고, 박테리아도 도가 지나치면 생명체의 수명을 끊어버릴 것이다. 적당한 수준에서의 공존·공생관계는 인정할 수 있지만 한쪽의 우위를 계속해 묵인하면 기생이 되고만다.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공생관계임을

공생과 기생

공생과 기생

TOEIC 800점 대책시리즈

90 최신권 전6권

경향과 공략법, WORD POWER 대책, IDIOM 대책

TOEFL 600점 전략시리즈

90 최신권 전6권

문법/STRUCTURE 전략, WORD POWER 전략, READING 전략, IDIOM 전략

10년 영어공부를 단사일배에 해결해주는 최귀한 EIT교재!

영어신문 잡지를 재미있게 읽는 법, 교실에서 가르쳐 주지 않는 英語, 미국 英語 이라서 재미있다, 나의 영어실력은? (Test Your English)

시사영어사 특점수업 공급하는 영어회화교재!

Spectrum: A Communicative Course in English, New English Course, Side by Side, Side by Side (2nd EDITION)

운전을 배웁시다

22년 전통·성실한 교육

★☆☆컴퓨터 교육시설 완비☆☆★

永登浦院	영동포 양평동 경인고속도로입구	0036-7 (633) 3962 3963
西部院	은평구중앙동 신전교교 앞	(356) 2341-3
北部院	도봉구 범동 북부경찰서 뒤	(994) 2861-5

유학

가난하지만 학문을 버릴 수 없어서 고향을 결심하고 유학을 떠났던 우리의 선배들. 그분들에 의해 이 나라 유학의 역사는 시작되었고, 그분들의 그 진실하고 고귀스러웠던 과거가 이제 이 나라의 주춧돌이 되었습니다.

유학이 개개 학생을 인생에 커다란 전환점을 만들고 있는 아이들에게,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마다 7개 부문의 정진 전문가들이 자신의 노력을 다해왔기에 호주 유학 1위라는 명예를 얻은 것은 바로 것입니다. 저희 아이들은 결코 자만하거나 완벽하다고 자랑하지는 않습니다.

이이상은 미래 학교들의 한국대표사수입니다. Bond University, Charles Sturt University, The University of Newcastle, The University of Western Sydney, Nepean, The University of Wollongong, Intensive English College, International English College